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전복의 징후로서의 몸  
- 클라이스트의 「O...후작부인」 연구 -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유 하 은

# 전복의 징후로서의 몸

- 클라이스트의 「O...후작부인」 연구 -

지도교수 정 향 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유 하 은

유하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12 월

위 원 장 \_\_\_\_\_ 최 윤 영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정 향 균 \_\_\_\_\_ (인)

위 원 \_\_\_\_\_ 김 태 환 \_\_\_\_\_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O...후작부인 Die Marquise von O...」을 동명의 여성주인공의 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작품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스캔들의 중심에는 O...후작부인의 ‘임신한 몸’이 있다. 클라이스트의 다른 노벨레들 역시 커다란 혼란으로부터 시작하곤 한다. 자연재해, 전염병, 정치적 소요 같은 커다란 사건들에 비해 한 여성의 임신은 다소 사소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그녀 개인만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질서를 뒤흔들고 나아가 사회의 담론질서를 교란시킨다.

클라이스트가 집필 활동을 했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은 정신사적으로는 계몽주의적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인 동시에, 시민가정의 영역에서는 가부장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이 소설에서 형상화된 몸과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서구 로고스중심주의의 흐름 속에서 몸에 대한 편협이 지속되던 이 시기에 클라이스트는 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둘째로 사건의 중심에 놓인 몸이 다른 아닌 임신한 여성의 몸이라는 점에 집중했을 때, 이것의 젠더적인 함의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인형극에 대하여 Über das Marionettentheater」는 동시대의 몸담론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비판적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쉴러의 『우미와 존엄에 대하여』와 상호텍스트성을 보이는 「인형극에 대하여」는 비정신적인 몸의 우미를 주장함으로써 쉴러적인 우미 개념의 전제를 비튼다. 이를 통해 클라이스트는 쉴러의 이론에 내재한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인간관과 이것이 대표하고 있는 로고스중심주의의 가치체계를 전복한다.

정신과 몸의 관계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관점을 비판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형극에 대하여」에서 나타나는 클라이스트의 몸 담론은 주디스 버틀러의 비체에 관한 현대적인 논의와 맞닿는다. 클라이스트는 장애인, 기계인형, 동물의 몸에 우미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의 위계를 전도시키고, 이로써 주체와 비체를 생산하는 기존의 상징질서에 도전한다. 또한 거울 앞에 선 청년의 일화는 특정한 형태의 몸을 강제하는 동시대의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적용하여 「O...후작부인」은 새로운 관점에서 독해된다. O...후작부인의 몸은 정신의 타자로서 몸과 담론적 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몸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논의되며, 각 층위에서 몸은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전복성을 배태한다.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스캔들의 핵심은 O...후작부인의 몸이 ‘임신하다’라는 독일어 표현의 뜻 그대로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in andre Umstände gekommen sei”는 데 있다. 이것은 O...후작부인의 몸이 기존의 질서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한다.

우선 임신을 기점으로 후작부인의 몸은 정신과 맺고 있는 이원론적 질서에서 이탈한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는 곧 후작부인의 정신과 몸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신과 달리 몸은 계속해서 임신의 신호를 감지한다. 「인형극에 대하여」에서 순수한 물질인 마리오네트의 몸에 우미라는 가치가 부여되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정신이 아닌 몸이 앞의 주체가 되어 정신 우위의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질서를 전복시킨다.

다른 한편 후작부인의 몸은 자신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담론질서에서 이탈한다. 자신도 모르게 임신한 후작부인의 몸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규범적 담론에 포섭되지 못한다. 그녀는 이에 대한 처벌로써 가족과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역설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후작부인은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모하고, 여기에 대령부인의 행위가 맞물리면서 후작부인은 자신의 바람대로 기존의 담론질서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족질서는 어머니로서 두 여성이 보여준 해방적인 움직임을 통해 재편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후작부인이 결국 가부장적 질서로 회귀했다는 점이 해방의 한계로 지적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성인물들의 전복적이고 저항적인 움직임을 그들의 주체성을 통해서만 설명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비의도적인 수행성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에 주목하여 후작부인의 신문광고로부터 담론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전복성을 읽어낸다.

주요어 :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O...후작부인, 인형극에 대하여, 몸, 로고스중심주의, 비체, 수행성, 프리드리히 폰 쉘러, 주디스 버틀러

학 번 : 2014-22243

# 목 차

I. 서론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1
1.2. 연구방향 .....	11
II. 「인형극에 대하여」에 나타난 비판적 몸 담론 ...	15
2.1. 순수한 몸의 우미 .....	15
2.2. 비체 개념의 단초: 클라이스트에서 버틀러로 .....	24
III. 정신의 타자로서의 몸: O...후작부인의 임신 .....	33
3.1. 정신과 몸의 분열 .....	33
3.2. 로고스와 감각의 위계질서의 전복 .....	40
IV. 몸에 관한 담론적 규율을 넘어서 : O...후작부인의 광고 .....	48
4.1. 담론적 규율 외부의 몸 .....	48
4.2. 해방적 움직임과 가족질서의 재편 .....	55
4.3. 낯선 몸의 수용과 전복의 가능성 .....	64
V. 결론 .....	73
참고문헌 .....	75
Zusammenfassung .....	79

# I. 서론

##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는 1777년에 태어나 1811년에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가 작가로서 글을 썼던 시기는 이 가운데 십 년 정도이다. 그가 남긴 글로는 여덟 편의 희곡과 열두 편의 중단편<sup>1)</sup> 그리고 정치적인 글과 약간의 시가 있다. 그의 죽음 이후 두 세기가 흐른 지금 클라이스트는 독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작가 중 한 명이며 그의 작품들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클라이스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작품은 크게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의 생애가 질곡으로 가득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클라이스트의 텍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죽고 나서 한 세기가 지난 20세기 초반부터이다. 그가 생전에 무명작가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와 그의 텍스트는 대개 병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이와 같은 인식은 그가 헨리에테 포겔과 동반 자살한 스캔들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sup>2)</sup> 하지만 1900년을 전후해 카프카를 비롯한 현대작가들이 클라이스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는 모더니티를 선취한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된다.

클라이스트의 노벨레인 「O...후작부인 Die Marquise von O...」의 초판은 1808년 클라이스트가 아담 뮐러 Adam Müller와 함께 발행한 문예잡지인 『뫼부스 Phöbus』에 발표되었다. 이후 이 작품은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1810년에 발간된 클라이스트의 소설집 1권에 실

---

1) 여기에는 노벨레로 분류되는 클라이스트의 대표적인 중단편과 장르를 확정할 수 없는 짧은 에세이 텍스트가 모두 포함된다. 클라이스트는 텍스트의 장르를 구분 짓는 개념을 드물게 사용했고, ‘소설 Roman’, ‘이야기 Erzählung’, ‘도덕적 이야기 Moralische Erzählung’, ‘일화 Anekdote’ 등의 개념을 사용할 때에도 특별히 고심하여 장르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Ingo Breuer(Hrsg.): Kleist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09, S. 90.

2) Vgl. Breuer(Hrsg.): Kleist Handbuch, S. 410.



렸다. 이 작품은 여느 클라이스트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발표된 당시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당대의 비평가들은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작품소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sup>3)</sup> 이러한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O...후작부인」에서는 강간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의 몸이라는 불편한 이미지가 전면에서 드러난다. 비단 이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클라이스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몸의 존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를 끈다. 예컨대 『펜테질레아 Penthesilea』와 「칠레의 지진 Das Erdbeben in Chili」에서는 몸이 처참히 찢기고 짓이겨지는 장면으로 작품이 끝나고, 「성 도밍고섬의 약혼 Die Verlobung in St. Domingo」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들 간의 몸이 갈등의 중심에 서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얼굴 붉어짐과 창백함, 기절 같은 모티브들이 반복된다. 본 논문은 클라이스트의 여러 작품들을 관통하는 ‘몸’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몸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O...후작부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O...후작부인」에 관한 수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여러 연구들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인식 Erkenntnis의 문제이다. 인식은 클라이스트의 연구 동향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주제인데, 이 작품의 초반에 서술이 생략된 부분에 그어진 긴 줄표와 관련하여 인식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다.<sup>4)</sup> 우선 후작부인이라는 인물의 인식 문제에 주목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연구동향이 있다. 20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실존주의적 연구에서는 후작부인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수수께끼 같은 세계에서 실존적 인식에 이르는 개인과 그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해석의 관점에서는

---

3) Vgl. Breuer: a.a.O., S. 106-107.

4) 후작부인이 백작에 의해 강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서술이 중단되고 그 자리를 ‘—’가 대신한다.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긴 줄표는 수많은 해석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독일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긴 줄표 Gedankenstrich’로 일컬어진다.

시민사회의 질서와 백작의 범죄라는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일련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은 후작부인이 임신의 원인을 정말로 몰랐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도리트 콘 Dorrit Cohn의 연구는 클라이스트가 『O...후작부인』의 초판을 발표한 이후 『뢰부스』에 게재한 단시 Epigramm를 근거로 삼아,<sup>5)</sup> 서술이 생략된 부분에서 후작부인은 단지 기절한 것처럼 연출했을 뿐이고 사실상 백작의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sup>6)</sup>

벤첼 커티스 Bentzel Curtis는 앞선 논의들과 달리 수용층위에서 인식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작품에 삽입되어있는 백조에 관한 백작의 꿈 이야기로 부터 논의를 전개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서술이 생략된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끝까지 알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세계의 인식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는 독자들이 서사적인 인식 narrative knowledge에 이르는 과정이 작품 내부에서 인물들이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는 과정과 평행하다고 주장한다. 작중인물들이 결국 확실한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듯이 해석자들도 확고한 인식을 가질 수 없으며, 이로써 클라이스트의 노벨레는 인식에 대한 충동을 추동하는 동시에 좌절시킨다는 것이다.<sup>7)</sup> 『O...후작부인』의 연구사에서 인식의 문제를 몸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켜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클라이스트의 연구사 전반에서 인식과 몸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몇몇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언어라는 주제가 둘 사이를 매개한다.

---

5) “『O...후작부인』 이 소설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내 딸아! 기절을 했다고! / 파렴치한 연극이야! 나는 알고있어. 그녀는 단지 눈을 감고 있었던 거야. Die Marquise von O... Dieser Roman ist nicht für dich, meine Tochter! In Ohnmacht! / Schamlose Posse! Sie hielt, weiß ich, die Augen bloß zu.” Heinrich von Kleist: Gedichte und Fabeln. In: Ilse-Marie Barth u.a.(Hrsg.): Sämtliche Werke und Briefe in vier Bänden. Bd. 3. Frankfurt a.M. 1991, S. 414.

6) cf. Dorrit Cohn: Kleist's "Marquise von O...": The Problem of Knowledge. In: Monatshefte 67(1975), pp. 129-144.

7) cf. Bentzel Curtis: Knowledge in Narrative: The Significance of the Swan in Kleist's "Die Marquise von O...". In: The German Quarterly Vol. 64(1991), pp. 296-303.

「O...후작부인」의 연구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작품과 당대 시민사회 사이의 접합지점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크리스티네 쿤첼 Christine Künzel은 법률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백작의 강간사건은 19세기 초반의 법에 따르면 해결책이 없는 특별 케이스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더 높은 신분에 있는 백작의 자백을 얻어내고 후작부인과 그가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사령관의 가족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된다. 작품 초반에 후작부인을 위협했던 러시아 군인들이 처형당한 것과 달리, 백작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 또한 범죄에 대한 판정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동시대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sup>8)</sup> 또 다른 연구들은 작품에서 재현되는 가족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소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을 읽어낸다. 안케 포겔 Anke Vogel은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19세기 전환기의 가족담론을 자신의 연구 주제로 삼는다. 그녀는 부르주아적인 핵가족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지배구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정당화하는 젠더 이론적 논의 geschlechtertheoretische Debatte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는 클라이스트가 자신의 모든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가족의 결합 형태를 해체하고 전복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점은 이 시대의 가족담론을 지배하던,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핵심으로 하는 루소의 사회이론이 클라이스트의 작품들에서 해체된다는 사실이다.<sup>9)</sup>

그런데 「O...후작부인」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불안정성과 가부장의 권위 추락에 관해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작품의 결말부분에 이르러 이루어지는 화해로 인해, 가부장적 소가족 내부에서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헨리에테 헤르빅 Henriette Herwig은 이 작품에서 후작부인

---

8) Vgl. Christine Künzel: Vergewaltigungslektüren: Zur Codierung sexueller Gewalt in Literatur und Recht. Frankfurt a.M./New York 2003.

9) Vgl. Anke Vogel: Unordentliche Familien. Über einige Dramen Kleists. Heilbronn 1996.

과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두 가지 해방의 서사가 진행되지만, 결국 후작부인이 다시 자율권을 상실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해방의 한계로 지적한다.<sup>10)</sup> 그런데 후작부인이 기존의 가족질서로 복귀함으로써 정말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이전에 일어났던 제도의 균열이 봉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클라이스트의 다른 노벨레들과 달리 갑작스럽게 행복하게 끝맺는 이 작품의 결말부분은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헤르만 바이스 Hermann Weiss는 이러한 행복한 결말이 내포한 불안정성에 주목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후작부인과 백작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 연구는 후작부인의 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인물의 불규칙한 역할변화가 인생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비극성을 주장하는 클라이스트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바이스는 언뜻 이상적으로 보이는 작품의 결말이 사실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부서지기 쉬운 세상의 조직 *gebrechliche Einrichtung der Welt*’이라는 작가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sup>11)</sup>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설명 대신 행복한 결말을 가로막는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의 몸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억압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가족제도에 의한 여성의 억압에 비해 백작의 강간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클라이스트의 연구사 전반에서 ‘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몸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전후이며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

10) Vgl. Henriette Herwig: Unwillkürlicher Körperausdruck und rhetorische Beredsamkeit des Leibes in Kleists Novelle *Die Marquise von O...*. In: Dies. (Hrsg.): *Zeichenkörper und Körperzeichen im Wandel von Literatur- und Sprachgeschichte*. Freiburg 2005, S. 63–79.

11) cf. Hermann F. Weiss: Precarious Idyll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Daughter in Heinrich von Kleist's *Die Marquise von O...*. In: *Modern Language Notes* 91(1976), pp. 538–542.

다. 이러한 연구는 몸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법론은 다양하다. 우선 클라이스트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에 주목하는 젠더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호우이 Bozena Choluj의 연구는 『펜테질레아』와 「O...후작부인」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이 보기와 듣기라는 형식을 통해 재현되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탐구한다.<sup>12)</sup> 그녀는 여성 인물들의 몸이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제시되는 현상이 그 인물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며 그들에게서 자율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몸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도 있다. 지크리트 바이겔 Sigrid Weigel은 「성 도밍고 섬에서의 약혼」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인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관한 담론을 몸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다.<sup>13)</sup> 그남 Andrea Gnam은 문화연구적인 측면에서 클라이스트의 텍스트에 나타난 몸을 분석한다. 그녀는 「인형극에 대하여 Über das Marionettentheater」와 「O...후작부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두 텍스트 모두에서 신체적인 부재와 사회적으로 규정된 몸이라는 테마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경우 그녀는 부분적으로 신체의 규율에 관한 푸코의 담론을 참조하고 있다.<sup>14)</sup> 그남의 연구는 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몸이라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작중인물이 단순히 권력관계의 희생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담론권력이 몸을 생산하면서도 몸이 이에 맞서 담론권력에 균열을 발생시킨다는 역동적인 관계성이 간과된다.

---

12) Vgl. Bozena Choluj: Auf den Körper schauen und hören: Zur Körperproblematik in Heinrich von Kleists *Penthesilea* und *Die Marquise von O*. In: Beiträge zur Kleist-Forschung. 2002, S. 103-116.

13) Vgl. Sigrid Weigel: Der Körper am Kreuzpunkt von Liebesgeschichte und Rassendiskurs in Heinrich von Kleists Erzählung *Die Verlobung in St. Domingo*. In: Kleist-Jahrbuch. 1991, S. 202-217.

14) Vgl. Andrea Gnam: Die Rede über den Körper. Zum Körperdiskurs in Kleists Texten *Die Marquise von O*. und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In: Heinz Ludwig Arnold (Hrsg.): Text und Kritik. Sonderheft Heinrich von Kleist. München 1993, S. 170-176.

이밖에도 『펜테질레아』에서 형상화된 펜테질레아와 아킬레우스의 몸이 상상의 이미지의 연출에서 출발하여 파괴에 이르는 과정을 라캉의 이론을 빌어 설명한 멘케 Bettine Menke의 연구가 있다.<sup>15)</sup>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데브리아커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담론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관심과 지식에 근거하여 클라이스트가 몸을 이해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이것이 그의 미학에 끼친 영향이 확인되었다.<sup>16)</sup> 마지막으로 클라이스트의 텍스트에서 몸에 대한 연구는 연극미학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07년에 발행된 클라이스트 연감 Jahrbuch에는 ‘클라이스트의 안무 Choreographien’라는 주제 하에 일련의 연구논문들이 게재되었는데, 그 가운데 터너의 논문은 클라이스트 희곡 『케트헨 폰 하일브론 Käthchen Von Heilbronn』에서 몸이 텍스트와 실제 무대공연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표현되는지를 비교하고 있다.<sup>17)</sup> 이에 따르면, 텍스트에서 인물들이 몸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상실하고 쓰러지는 장면이 언어적인 공백으로 처리되어 독자가 이를 상상의 움직임으로 채워야 하는 반면, 상연된 연극무대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움직임으로 채우는 것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클라이스트의 여러 텍스트들에서 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다소 산발적인 경향을 띠기는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몸이라는 주제가 다양한 분석관점을 도입하는 생산적인 계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몸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몸을 언어라는 주제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클라이스트 연구에서 언어라는 주제에 관한

---

15) Vgl. Bettine Menke: Körper-Bild und-Zerfällung, Staub. Über Heinrich von Kleists *Penthesilea*. In: Claudia Öhlschläger u. Brigit Wiens (Hrsg.): Körper Gedächtnis Schrift. Der Körper als Medium kultureller Erinnerung. Berlin 1997, S. 122-156.

16) Vgl. Gudrun Debriacher: "Der Rede der Seele über den Körper". Das "commercium corporis et animae" bei Heinrich von Kleist. Wien 2007.

17) Vgl. Christina Thurner: Körper-Beherrschung und Kontrolle-Verlust in Kleists Dramen. In: Kleist Jahrbuch. 2007, S. 195-203.

논의는 언어회의 또는 언어비판의 측면에서 전개되는데, 여러 연구들이 클라이스트의 작품들에 편재하는 몸의 움직임이 언어와 맺는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sup>18)</sup> 예를 들면 이러한 연구들은 클라이스트의 텍스트에서 인물들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중단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몸짓언어와 팬터마임, 기절이나 얼굴의 홍조 같은 몸 상태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통해 그것은 몸과 언어가 맺는 특정한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언어에 대한 대안으로서 몸과 결합된 언어가 진실을 담보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며,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폄하되어온 몸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sup>19)</sup>

---

18) 클라이스트의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콤머렐 Max Kommerell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클라이스트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팬터마임과 몸짓을 강조하면서 신체언어 Körpersprache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Max Kommerell: Die Sprache und das Unaussprechliche. Eine Betrachtung über Heinrich von Kleist. In: Ders.: Geist und Buchstabe der Dichtung: Goethe, Schiller, Kleist, Hölderlin, Frankfurt a.M. 1991. Zitiert nach Breuer(Hrsg.): Kleist Hanbuch, S. 341.

19) 노이만은 언어의 정체(停滯)와 몸의 비틀거림의 관계를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는 특히 말의 형성과정을 다루는 「말하면서 점차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하여 Über die allmähliche Verfertigung der Gedanken beim Reden」와 성찰을 통한 우미의 상실을 다루는 「인형극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언어와 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한다. 그는 클라이스트에게서 언어를 통한 인식과 진실의 발견은 언어의 ‘원죄 Sündenfall’ 자체, 즉 언어의 실수와 말 더듬거림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의 중단과 몸의 비틀거림 자체가 진실에 근거한 인식이 ‘스스로 말을 해나가는’ 표지라고 본다. 이로써 그는 클라이스트가 이성에 근거한 진실 추구와 언어사용을 비판하면서, 몸을 매개로 하는 언어의 사용과 진실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Vgl. Gerhard Neumann: Das Stocken der Sprache und das Straucheln des Körpers. Umriss von Kleists kultureller Anthropologie. In: ders. (Hrsg.): Heinrich von Kleist. Kriegsfall-Rechtsfall-Sündenfall. Freiburg i. Br. 1994, S. 13-29.

오슈만도 노이만과 마찬가지로 「말하면서 점차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언어의 원천으로서의 움직이는 몸과 생생한 말하기를 통해 보장되는 ‘진실’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우선 후기 계몽주의를 이전의 이성 중심주의와 구분되는 ‘감각의 복권’ 시대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클라이스트의 언어는 그가 말하는 후기 계몽주의의 연장선에서 언어의 ‘말하기’를 ‘보여주기’에

국내에서 클라이스트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1970년경부터 지금까지 총 학위논문 60여 편과 학술지 논문 120여 편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를 이룬다. 초기의 논문들은 『깨어진 항아리 Der zerbrochene Krug』 와 『프리드리히 폰 훔부르크 왕자 Prinz Friedrich von Homburg』 같은 작품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글과 작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클라이스트의 몸담론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한 편도 존재하지 않는다. 「O...후작부인」 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여덟 편의 학술지 논문과 세 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권혁준의 연구가 있다. 권혁준은 「O...후작부인」 에서 재현되는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클라이스트의 사회비판적인 성격을 읽어낸다. 그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이 19세기 독일에서 가족상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시민가정’의 특성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히고, 이 노벨레가 이상적 가족상으로서 시민가정의 구상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후작부인의 가족은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민계층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적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회적 심급으로서 사회의 규칙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가부장의 권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후작부인과 어머니의 해방적인 움직임은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점에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가족제도 비판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sup>20)</sup> 노태한도 이와

---

가깝게 만듦으로써 언어를 감각화시키는 보다 급진적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희곡 『펜테질레아』 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입증한다. 오슈만은 언어의 기원을 인간의 감정으로 설명하는 루소의 언어관과 클라이스트의 언어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클라이스트의 언어가 ‘진실’을 담보하는 보여주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로써 그는 클라이스트의 희곡을 ‘보이지 않는 연극 unsichtbares Theater’으로 지칭한 괴테의 비판이 사실은 클라이스트의 실험적인 언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Vgl. Dirk Oschmann: How to do words with things. Heinrich von Kleists Sprachkonzept. In: Colloquia Germanica. Vol. 36. No. 1. (2003), S. 3-26.

20) 권혁준: 19세기 독일문학에서의 가족과 사회의 긴장관계 - 클라이스트의 『O 후작부인』 과 폰타네의 『에피 브리스트』 를 중심으로.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



비슷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는 비판의 대상을 사회와 종교로 확장한다. 그는 클라이스트가 이 작품을 통해 인습적 가치와 관념, 가부장적 부권, 여성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존 사회의 규범, 도덕, 권위, 종교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계몽주의적 면모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21)</sup> 이외에도 서순석은 후작부인이라는 인물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sup>22)</sup> 김현정은 이 작품의 낭만주의적 요소와 사실주의적 요소를 밝히고자 했다.<sup>23)</sup>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연구, 서술 이론적 연구,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본 논문은 클라이스트의 「O...후작부인」을 중심으로 클라이스트의 몸담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몸은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인식의 문제와 가족제도 비판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선행연구들의 맥락을 이어받아 논의를 구체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사에서 미진하게 남아있는 영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비추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후작부인」에서 인식의 문제는 몸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연구된 적이 없다. 이러한 분석은 인식이라는 주제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문제가 기존의 클라이스트 연구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어온 ‘칸트위기’ 문제와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 재현되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분석하는 데도 몸이라는 키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 주제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을 구체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성폭력 문제와 작품의 모호한 결말부를 새롭게 해석해볼

---

76집(2017), 1-28쪽.

21) 노태한: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O 후작부인 Die Marquise von O...』. 계몽주의적 사회비판과 종교비판. 실린 곳: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제 49권(2010), 223-253쪽.

22) 서순석: 클라이스트의 단편소설 『오 후작부인』에 나타난 주요인물의 양면성 연구. 실린 곳: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제 21권(2001), 389-420쪽.

23) 김현정: Heinrich von Kleist의 「Die Marquise von O...」에 대하여. 실린 곳: Echo No.6(1993), 23-29쪽.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살던 시대와 충돌하면서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선취하고 있는 클라이스트 작품의 독특성을 몸이라는 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새롭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2. 연구방향

클라이스트의 노벨레인 「O...후작부인」은 괴테가 정의한 장르 규정에 걸맞게 그 시작에서부터 ‘전대미문의 사건 unerhörte Begebenheit’이 펼쳐진다. 여기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스캔들의 중심에는 ‘임신한 몸’이 있다. 미망인인 O...후작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클라이스트의 다른 노벨레들 역시 커다란 혼란으로부터 시작하곤 한다. 자연재해, 전염병, 정치적 소요 같은 커다란 사건들에 비해 한 여성의 임신은 다소 사소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그녀 개인만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질서를 뒤흔들고 나아가 사회의 담론질서를 교란시킨다.

여기에서는 우선 몸이 화두가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임신을 한 여성의 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문학 작품에서 여성의 몸 이미지는 대개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처녀의 몸이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클라이스트는 이러한 친숙한 여성의 몸 대신, 영문을 알 수 없이 배가 불러온 여성의 몸이라는 불편한 이미지를 우리 눈앞에 제시한다. 본 연구는 「O...후작부인」을 동명의 여성주인공의 몸을 중심으로 독해해보고자 한다. 클라이스트가 집필 활동을 했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은 계몽주의적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인 동시에 가부장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이 소설에서 형상화된 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로 서구 로고스중심주의의 흐름 속에서 몸에 대한 폄하가 지속되던 이 시기에 클라이스트는 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둘째로 사건의 중심에 놓인 몸이 다름 아닌 임신한 여성의 몸이라는 점에 집중했을 때, 이것의 젠더적인 함

의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1장에서는 작품 분석에 앞서 「인형극에 대하여」를 통해 클라이스트의 몸에 대한 전반적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르를 규정하기 어려운 이 짧은 텍스트는 지금까지 수많은 해석을 불러일으켜왔다. 이 장에서는 텍스트의 중심에 있는 마리오네트의 몸을 비롯한 여러 몸에 주목하여 이러한 몸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클라이스트의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수렴하지 않으며, 이 텍스트 안에서 몸에 대한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관점들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논의를 통해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몸이 전복적 성격을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여기에는 마리오네트의 순수한 몸이 있다. 마리오네트의 몸이 영혼의 방해를 받는 인간의 몸보다 더 우미가 있다는 화자의 주장은 동시대 쉴러의 미학 텍스트인 『우미와 존엄에 대하여 Über Anmut und Würde』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쉴러와의 미학적 대결이라기보다, 여기에 내재해 있는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인간관과 이것이 대표하고 있는 로고스중심주의의 가치체계에 대한 전복으로 볼 수 있다. 마리오네트의 순수한 몸에 대한 긍정은 정신의 여분으로 평가절하 되어 온 몸을 구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여기에서 몸은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당대의 몸 담론과 충돌한다. 또한 영혼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몸의 존재는 당시의 주류사상과 대립관계에 있던 작가의 입장에 대한 환유로 읽을 수도 있다. 영혼, 정신, 이성을 압도하는 몸의 존재는 클라이스트가 당대의 로고스중심주의적인 사유의 흐름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과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거두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칸트위기와도 맥을 같이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미가 있는 몸과 대비를 이루는 무용수들의 몸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청년의 몸이 있다. 이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규범적인 이상을 체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

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들의 몸은 고정된 경계를 가진 순수한 물질로서의 몸이 아니라 사회와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각인되는 담론의 산물로서의 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클라이스트의 몸 형상화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버틀러는 생물학적인 몸의 존재론 대신 수행성을 통해 구성되는 몸에 관한 독특한 사유를 전개했다. 그녀는 몸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경계를 수립하는 담론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버틀러는 언제나 특정한 규범에 맞는 몸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몸은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렇게 배제된 몸을 ‘비체’라고 부른다. 「인형극에 대하여」에서도 정상적인 몸이라는 규범적 틀에 맞지 않는 몸들이 등장한다. 이 텍스트는 마리오네트의 기계적인 몸, 다리를 잃은 장애인의 몸, 동물의 몸을 불러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몸이 더 우미가 있음을 주장한다. 버틀러의 이론을 빌려 말하자면, 클라이스트는 비체들의 존재를 환기시킴으로써 이들을 배제시킨 체제를 전복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클라이스트가 버틀러적인 관점을 선택했다고까지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의 텍스트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O...후작부인」을 몸 담론과 연관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스캔들의 핵심은 O...후작부인의 몸이 ‘임신하다’라는 독일어 표현의 뜻 그대로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in andre Umstände gekommen sei”<sup>24)</sup>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O...후작부인의 몸이 기존의 질서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탈은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임신의 기점으로 후작부인의 몸은 정신과 맺고 있는 이원론적 질서에서 이탈한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는 곧 후작부인의 정신과 몸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신과 달리 몸은 계속해서 임신의

---

24) Heinrich von Kleist: Die Marquise von O.... In: Helmut Sembdner(Hrsg.): Heinrich von Kleist. Sämtliche Werke und Briefe. München 2001, S. 104. 이 후의 인용은 본문에 내주(MO페이지 수)로 표기함.

신호를 감지한다. 순수한 물질인 마리오네트의 몸에 우미라는 가치가 부여되었듯이, 여기에서는 정신이 아닌 몸이 삶의 주체가 된다. 또한 이원론적 존재론에서 몸과 더불어 억압되어온 성적 욕망이 서술 층위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서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얼굴의 홍조 같은 인물들의 신체적 반응이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언어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언어로 해석된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이를 성적욕망과 관련된 몸의 문제로 새롭게 조명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작부인의 몸은 자신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담론질서에서 이탈한다. 작품 초반부의 후작부인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규범적 이상이 열거된다. 자신도 모르게 임신한 후작부인의 몸은 이러한 규범적 담론에 포섭되지 못하며, 그녀 역시 이에 대한 처벌로써 가족과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후작부인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모한다. 그리고 여기에 남편의 금기에서 벗어난 대령부인의 행위가 맞물리면서 후작부인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기존의 담론질서 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질서는 어머니로서 두 여성이 보여준 해방적인 움직임을 통해 재편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후작부인이 결국 가부장적 질서로 회귀했다는 점이 해방의 한계로 지적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성인물들의 전복적이고 저항적인 움직임을 그들의 주체성을 통해서만 설명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의도적인 수행성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에 주목하며, 후작부인의 신문광고로부터 담론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전복성을 읽어낼 것이다.

「O...후작부인」에서 임신한 몸은 순수한 물질 또는 생물학적 실체로서 등장하여 추상적인 정신과 대결하며 로고스중심주의를 뒤흔든다. 또한 그것은 권력의 규범적 담론에 저항하며 가부장적인 담론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한다. 이처럼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재현되는 몸은 동시대의 몸 담론과 현대적 몸 담론 사이를 오가며, 기존의 질서를 교란하는 전복적인 성격을 배태하고 있다.

## II. 「인형극에 대하여」에 나타난 비판적 몸 담 론

### 2.1. 순수한 몸의 우미

「인형극에 대하여 Über das Marionettentheater」는 ‘나’로 지칭되는 일인칭 서술자가 무용수 C.씨와 나누는 대화로 구성된 짧은 분량의 글이다. 오페라단의 수석무용수인 C.씨는 시장 한복판에서 우연히 만난 ‘나’에게 인형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무용수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정신이 깃든 인간보다 마리오네트가 더 우미가 있다는 것이다. 서술자 ‘나’는 처음에 “너무도 기이한 주장 so sonderbare Behauptung”<sup>25)</sup>에 당황해하며 “그가 이런 역설적인 문제를 아무리 교묘하게 끌고나가더라도, 인간의 육체보다 기계적인 인형의 몸이 더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믿게 할 수는 없을 것 daß, so geschickt er auch die Sache seiner Paradoxe führe, er mich doch nimmermehr glauben machen würde, daß in einem mechanischen Gliedermann mehr Anmut enthalten sein könne, als in dem Bau des menschlichen Körpers.” (ÜM342)이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무용수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기묘한 방식으로 논증해내고, 마침내는 서술자가 “얼떨떨하게 zerstreut” (ÜM345) 그의 주장을 자신의 입으로 되풀이하면서 이 대화는 끝이 난다. 이 텍스트는 독특한 형식으로 인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르 규정이 불분명하다.<sup>26)</sup>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이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우

---

25) Heinrich von Kleist: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In: Helmut Sembdner(Hrsg.): Sämtliche Werke und Briefe. Zweiter Band. München 2013, S. 339. 이후의 인용은 본문에 내주(ÜM페이지 수)로 표기함.

26) 어느 곳에서는 이 글이 ‘철학의 한 대목 Stück Philosophie’으로 다루어졌고, 다른 곳에서는 ‘신문 문예란의 기사 Feuilleton’, ‘우의 Parabel’, ‘논문 Aufsatz’으로, 또 ‘단편 Erzählung’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Vgl. Breuer(Hrsg.): Kleist Handbuch, S. 152.

미'라는 미학개념에 주목하여 이것을 클라이스트 미학의 단초를 제공하는 텍스트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형극에 대하여」는 분명 우미라는 개념을 다룸으로써 동시대의 철학적, 미학적 담론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적인 모순과 유머는 이 글을 클라이스트의 철학적 사유에 대한 논설보다는 동시대의 담론을 겨냥한 풍자와 반어로 가득 찬 패러디로 읽도록 만든다. 클라이스트는 무용수 C.씨의 입을 빌려 동시대의 철학적 담론을 우스꽝스럽게 비틀고 있는 것이다.

마리오네트가 인간보다 더 우미가 있다는 주장은 동시대의 통념에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리오네트를 인간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도착된 위계질서를 보여주는데, 이는 곧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전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뒤집어엮고 있는가? 우선 우미 개념의 동시대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미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18세기의 미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sup>27)</sup> 「인형극에 대하여」보다 몇 년 앞서 발표된 쉴러의 『우미와 존엄에 대하여』는 우미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학저술로 이미 여러 편의 선행연구들이 두 텍스트 사이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클라이스트는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 쉴러의 우미 개념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할 수

---

27) 18세기에 이르러서 우미 개념의 역사는 반봉건적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우미 개념은 예술과 문학, 이론의 영역에서 폭 넓게 사용되었고, 봉건사회의 장식적인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면서 시민사회의 자기인식이 반영된 개념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우미 개념은 어떤 이분법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상의 비너스'와 '지상의 비너스'의 구분에 근거한 이분법이다. 시민적인 우미는 전자의 이상화와 후자의 폄하를 통해 구성된다. 즉 시민적 우미는 근본적으로 감각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시민적인 도덕성의 가치를 높이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우미는 걸모습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천상의 비너스에게 귀속되는 영혼의 장식일 때만 우미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점차 발전되어 가는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체계에서 이러한 시민적 우미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시민적 우미의 이런 모순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우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은 데카르트 이후에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과제를 떠맡게 된다. Vgl. Karlheinz Barck u.a.(Hrsg.): Ästhetische Grundbegriffe Band 1. Stuttgart/Weimar 2000, S. 197-199.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우미라는 가치를 부여한 존재가 마리오네트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쉐러의 정의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현상에서의 자유’인데, 이는 아름다운 대상이 무엇보다도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그런데 클라이스트가 우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마리오네트는 마디마다 실에 매여 그것을 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맡긴 타율성의 화신이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 클라이스트적인 우미는 쉐러의 우미 개념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자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쉐러적인 우미 개념의 전제를 비꼬고 있다.

우미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서술자와 무용수의 관심은 우선 마리오네트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로 향한다. 서술자는 “인형을 조작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용수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무용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 daß der Maschinist, der diese Puppen regierte, selbst ein Tänzer sein, oder wenigstens einen Begriff vom Schönen im Tanz haben müsse” 것이 (ÜM340) 아닌지 묻는다. 이러한 질문에는 마리오네트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 덕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즉 서술자는 마리오네트의 우미가 그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리오네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우미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인간의 몸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무한한 의식을 가질 때, 다시 말해 인형이나 신에게서 우미가 나타납니다.

[...] so, daß sie, zu gleicher Zeit, in demjenigen menschlichen Körperbau am reinsten erscheint, der entweder gar keins, oder ein unendliches Bewußtsein hat, d.h. in dem Gliedermann, oder in dem Gott. (ÜM345)

---

28) 김주휘: 쉐러에게서 전인적 인간에 대한 요청의 이해. 실린 곳: 대한철학회 제 140집(2016), 246쪽 참조.



마리오네트는 인간에게서 무언가가 결여된 존재이다. 여기에서 이것은 “의식 Bewußtsein”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정신 Geist” (ÜM340), “영혼 Seele”으로 (ÜM340) 일컬어진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몸’을 자신의 상대개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에서 인간은 의식이나 정신 또는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전제된다.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앞의 세 가지가 제거된 것이 바로 마리오네트이고, 따라서 마리오네트는 순수한 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몸으로서 마리오네트가 과연 우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서술자와 무용수는 극명한 의견대립을 보인다. 무용수는 마리오네트가 의식, 정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미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미에 대한 쉴러의 규정과 대립각을 세운다. 쉴러는 순수한 몸 자체의 아름다움은 우미가 아니라고 논한 바 있다. 그는 아름다운 피부와 몸매, 목소리 같은 순전히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우미와 구분 짓기 위해서 “구조적인 아름다움architektonische Schönheit”<sup>29)</sup>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쉴러에게 우미란 아름다움과 도덕의 동시적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30)</sup> 그에게 있어서 우미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을 관장하는 정신의 문제인 것이다. 쉴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우미가 있다는 것은 그가 단지 육체적으로 아름다워 보일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쉴러의 우미 개념은 인간의 몸과 정신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미학적 표현이다.

쉴러의 『우미와 존엄에 대하여』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중심에는 “이성적으로 감각적인 존재 vernünftig sinnliches Wesen”로서 인간의 이원성에 대한 자각이 있다.<sup>31)</sup> 그런데 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쉴러의 관심은

---

29) 프리드리히 쉴러(장상용 역): 쉴러의 미학·예술론-칼리아스 편지, 우미와 존엄 외.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101쪽.

30) 김주휘: 전인적 인간, 245쪽 참조.

31) 김주휘: 쉴러의 『칼리아스편지』와 『우미와 존엄』에서 미의 이해와 미의 실현에 대한 요구. 실린 곳: 대한철학회 제 136집(2015), 160-161쪽 참조.

비단 그의 미학 저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미학 저술 집필 이전에 의학을 공부하며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철학적 작업들의 주제와 상통한다. 연대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쉴러는 슈투트가르트의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다가 삼년 후 의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얼마간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우리가 의사로서 쉴러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의학의 영역에서 별다른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학은 쉴러의 사유와 문학 작품에 흔적을 남겼다. 쉴러는 총 세 편의 논문을 작성한 후에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논문의 제목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이 정신적인 본성과 맺는 관계에 대한 시론 Versuch über den Zusammenhang der thierischen Natur des Menschen mit seiner geistigen」이다.<sup>32)</sup> 제목으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듯이, 쉴러가 이 논문에서 다룬 주제는 인간의 이원적인 본성과 그 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승인 받지 못했던 쉴러의 첫 번째 학위논문의 주제 역시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쉴러는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온 것이다.

쉴러는 의학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던 때부터 이후 작품 집필을 할 때까지 몸과 정신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천착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sup>33)</sup> 그는 자신의 의학논문을 통해 몸과 정신 사이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

32) “(쉴러의 의학박사 논문의) 22절에서는 사람의 외형으로부터 몸에 대한 영혼의 작용 가능성에 관하여 경험적인 논증을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전의 부분에서는 역으로 영혼에 대한 몸의 작용이라는 문제에 관해 상세히 논한다.” “Es geht im Textzusammenhang des §22 um die Frage, ob sich aus der Physiognomie des Menschen ein Erfahrungsargument für die Möglichkeit der Wirkung der Seele auf den Körper ableiten läßt — vorher ist ausführlich von der umgekehrten Richtung, der Wirkung des Körpers auf die Seele, die Rede gewesen.” Ludwig Stockinger: „Es ist der Geist, der sich den Körper baut“. Schillers philosophische und medizinische Anfänge im anthropologiegeschichtlichen Kontext. In: Georg Braungart u. Bernhard Greiner(Hrsg.): Schillers Natur: Leben, Denken und literarisches Schaffen. Hamburg 2005, S. 78.

33) Vgl. Ebd.

써 인간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본성이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를 마련했다. 그리고 미학 저술인 『우미와 존엄에 대하여』를 통해서도 인간의 몸과 정신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우미라는 미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이를 인간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쉐러는 아름다움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아름다움과 도덕이 일치된 상태, 즉 몸과 정신의 조화로운 상태로서 우미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완전성’의 이상이 된다.

쉐러는 몸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전체로서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념에 불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완전성’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의 가장 완숙한 열매’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쉐러에게 있어서 몸과 정신의 결합으로서 인간의 존재는 결점이 아니다.<sup>34)</sup> 하지만 쉐러가 이토록 둘의 일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골몰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두 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원성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약점이 된다. 여기에는 서구 로고스중심주의적 전통에서 유구하게 이어져온 몸에 대한 폄하가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을 몸과 정신으로 나누는 이원론적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위계질서를 전제한다. 플라톤은 흔히 ‘심신이원론’의 계보에서 이원론의 효시로서 언급된다. 『파이돈 Phaidon』은 특히 영혼과 몸의 관계에 관한 많은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플라톤은 이 대화편을 통해 영혼이 참된 실재를 인식하기 위해 몸으로부터의 분리와 단절을 주장한다.<sup>35)</sup>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몸을 배제한 순수한 정신만을 자아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타자화한다.<sup>36)</sup> 그리고 사유하는 정신으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객체와 대상으

---

34) Vgl. Stockinger: „Es ist der Geist, der sich den Körper baut“, S. 75–76.

35) 안용규: 플라톤의 신체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42쪽 참조.

36)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나는 다만 하나의 생각하는 것 즉 하나의 정신, 하나의 오성 혹은 이성일 따름이다”라고 쓴다. 그리고 뒤이어 “나는 지체들이 모인 것, 즉 인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르네 데카르트(최명관

로 존재할 뿐인 몸은 독자적인 운동의 원리를 갖는 하나의 기계가 된다.<sup>37)</sup>

데카르트에 의해 정립된 몸과 정신의 관계와 기계로서 몸의 이미지는 근대적인 몸의 표상으로 고정되어 오래도록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17세기 이후의 철학과 의학담론에서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인간관과 여기에 내포된 위계질서를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정초된 근대미학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놓여있다. 근대미학은 데카르트적인 합리성이 ‘알 수 없는 것 je ne sais quoi’을 해명하며 자연과 감각의 세계, 즉 몸을 폄하하고 억압하는 것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sup>38)</sup> 쉴러 미학의 골자를 이루는 문제의식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자연과 감각 영역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몸에 대한 정신의 일방적인 지배 대신 둘 간의 조화를 지향했던 쉴러의 이론은 역설적이게도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가 몸에 부여한 권리는 단지 정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뿐이다. 쉴러에 따르면 우미는 ‘도덕적인 것이 감각적인 것에 부여하는 은혜’이며 ‘자연이 정신의 의지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할 때 생겨난다.<sup>39)</sup> 즉 쉴러의 이론에서도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적 질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이 조화의 모델을 내세워 위계를 은폐한다는 점에서 보다 기만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무용수는 우미를 마리오네트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쉴러의 우미 개념에 내포된, 조화를 가장한 위계질서를 폭로한다. 쉴러는 우미가 몸과 정신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했지만, 무용수가 보기에 여기서 몸은 사실상 정신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순수한 몸으로서 마리

---

역): 방법서설•성찰. 창 2010, 167쪽 참조.

37) “그때 맨 먼저 떠오른 것은, 내가 얼굴·손·팔 및 모든 지체로 된 기계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기계는 시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나는 이것을 신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데카르트: 방법서설•성찰, 164쪽.

38) 최준호: 미학적 인간과 조화로운 삶: Schiller를 중심으로. 실린 곳: 철학탐구 제 21집(2007), 240-241쪽 참조.

39) 쉴러(장상용 역): 쉴러의 미학·예술론, 101쪽.

오네트 혹은 순수한 정신으로서 신만이 우미를 가질 수 있다는 무용수의 주장은 쉴러의 이론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다. 무용수는 쉴러가 주장한 몸과 정신의 조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인간 존재의 이원성을 다시금 문제의 근원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미에 관한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나간다.

그 사이에 무용수는 자신이 말한 이 정신의 마지막 과편마저 마리오네트로부터 제거함으로써 마리오네트의 춤이 완전히 기계적인 힘의 영역으로 넘어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손잡이를 가지고 마리오네트의 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만약 어떤 기계공이 그의 요구대로 마리오네트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그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물론 베스트리스를 포함한 이 시대의 다른 어떤 숙련된 무용수도 출 수 없는 춤을 추게 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Inzwischen glaube er, daß auch dieser letzte Bruch von Geist, von dem er gesprochen, aus den Marionetten entfernt werden, daß ihr Tanz gänzlich ins Reich mechanischer Kräfte hinübergespielt, und vermittelt einer Kurbel, so wie ich es mir gedacht, hervorgebracht werden könne. [...] Er lächelte, und sagte, er getraue sich zu behaupten, daß wenn ihm ein Mechanikus, nach den Forderungen, die er an ihn zu machen dächte, eine Marionette bauen wollte, er vermittelt derselben einen Tanz darstellen würde, den weder er, noch irgend ein anderer geschickter Tänzer seiner Zeit, Vestris selbst nicht ausgenommen, zu erreichen imstande wäre. (ÜM340)

무용수는 “정신의 마지막 과편”, 즉 마리오네트를 조종하는 사람의 정신 작용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최상의 우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특히 기계와 관련된 묘사가 눈에 띈다. 무용수에 의하면 정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마리오네트의 움직임은 온전히 기계적인 법칙을 따

를 뿐이다. 이 대목은 데카르트의 몸에 대한 기계적인 은유를 연상시킨다. 다만 기계로서의 몸과 정신의 위계관계가 서로 완전히 뒤바뀌어있다. 데카르트가 몸과 분리된 순수한 정신이 자아의 본질임을 주장했다면, 무용수는 정신이 제거된 순수한 몸이 우미라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적 구도에서는 정신이 아닌 몸이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써 무용수는 이원론적 인간관에 내재한 정신 우위의 위계질서를 전복한다.

무용수는 우미에 관한 논설을 통해 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데카르트적인 모델로 회귀하여 이원론적 인간관을 전복시킨다. 사실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의 모델은 이미 18세기 초반 독일 계몽주의의 사상적 배경하에서 몸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이원론으로 대체되어가고 있었다.<sup>40)</sup> 쉴러의 미학이론도 이와 같은 흐름 안에 놓여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쉴러의 이론은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의 구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시도로 그치면서, 결국 몸을 한낱 정신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켜버린다. 따라서 무용수는 쉴러적인 조화의 모델을 폐기하고 몸과 정신의 이원론적 구도의 원형인 데카르트의 모델을 전복시켜 몸을 정신보다 우위에 둔다.

몸과 정신 사이의 위계질서를 전복하는 무용수의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클라이스트의 생애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칸트위기 Kantkrise’와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클라이스트는 이성의 힘에 대해 공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칸트 철학을 접한 이후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사상적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그는 계몽주의라는 동시대의 사상사적 흐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작품 집필에 있어서 특정한 문학사조로 분류되지 않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클라이스트의 작품은 이성적인 것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감정, 비합리성, 몽환적인 상태 같은 특징을 지닌다. 즉 클라이스트의 작품세계에서는 몸과 정신을 위시한 가치체계가 전복되고 있는 것이다.

---

40) Stockinger: „Es ist der Geist, der sich den Körper baut“, S. 81.

## 2.2. 비체 개념의 단초: 클라이스트에서 버틀러로

「인형극에 대하여」에서 서술자를 열렬하게 만드는 무용수 C.씨의 주장은 단지 마리오네트가 인간보다 더 우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은 이밖에도 계속된다. 그는 “다리를 잃은 불구자들 Unglückliche [...], die ihre Schenkel verloren haben” (ÜM341)의 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미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펜싱을 하는 꿈의 움직임과 기계인형의 움직임이 인간의 움직임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맞물리며 주변적인 몸들의 존재를 환기한다. 불구자와 꿈, 기계인형은 모두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몸들이며, 심지어 몸이라는 범주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몸이 더 우미가 있다는 무용수의 주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위계질서를 전복시킨다. 텍스트적인 층위에서 볼 때 우미라는 미적인 가치는 더 아름다운 몸과 덜 아름다운 몸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몸들 가운데 위계질서가 세워진다. 어떤 몸들은 그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한 가치체계의 질서 속에서 각각의 위상이 정해지는 몸은 동일한 형태로 고정된 단 하나의 몸이 아니라 다수의 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복수의 몸들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생물학적 실재, 즉 물질로서의 몸에 관한 논의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몸들에 대한 가치체계의 질서는 어떻게 수립되며 이러한 질서를 전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와 관련해 다수의 몸들의 존재에 주목한 젠더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버틀러는 젠더 이원론의 체계에서 단 하나의 정해진 몸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다수의 몸들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열거되는 ‘다른 몸’들에도 포함되지 않는 몸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논한다.<sup>41)</sup> 몸에 관한 버틀러의 이론적 관심은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질서에 맞지 않는 비천한 몸들에 대해 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버틀러는 몸에 대한 사유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한다. 데카르트 이후 이원론적 존재론에서 폄하되어온 몸의 위상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작업들이 행해졌고 몸을 진지하게 사유하려는 이론들이 증가해왔다. 이들은 주로 이성의 우위에 놓여있던 생물학적인 몸을 긍정하고 이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버틀러는 몸을 존재론적으로 긍정하기 이전에 물질성이라는 몸의 기본 전제에 과감히 도전한다. 다시 말해 버틀러의 이론은 몸의 존재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것을 문제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몸을 자명하고 환원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 즉 ‘살아있는 진짜 몸’에 대한 긍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는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버틀러는 실질적인 몸을 긍정하는 것은 곧 담론권력과 밀접히 연관되어있음을 드러낸다. 실질적인 몸이라는 것에는 사실 특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몸들만이 포함될 뿐이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몸들은 사유와 삶의 바깥으로 배제된다는 것이다.<sup>42)</sup>

버틀러가 ‘실질적인 몸이 있다’라는 언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는 “분명 육체는 살고 죽으며, 먹고 잠자며, 고통과 기쁨을 느끼며, 병과 폭력을 견딘다”<sup>43)</sup>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버틀러에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물질성이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모든 물질이 동등하게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유형의 물질만이 물질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에 맞지 않는 다른 종류의 물질들은 배제되고 물질성이라는 지위를 획득하지조차 못한다.<sup>44)</sup> 몸의 구성에 대한 버틀러의 논의를 담고

---

41) 전해은: 섹스화된 몸. 엘리자베스 그로츠와 주디스 버틀러의 육체적 페미니즘. 새물결 2010, 176쪽 참조.

42) 전해은: 같은 책, 174-176쪽 참조.

43)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Routledge 1993, p. xi: “For surely bodies live and die; eat and sleep; feel pain, pleasure; endure illness and violence”

44) 전해은: 섹스화된 몸. 184-188쪽 참조.



있는 텍스트 『의미 있는 몸 Bodies that matter』의 서문에서 그녀는 “어떤 몸이 의미 있게 되는가? 그리고 왜?”<sup>45)</sup>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여기에서 ‘matter’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인 의미에 주목해볼 때 ‘의미 있는 몸’이란 곧 ‘물질이 된’ 몸이다. 즉 의미 있는 몸으로 다루어질 자격을 갖춘 몸만이 물질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버틀러에 따르면 물질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미화 작용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버틀러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현장이나 표면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경계, 고정성, 표면의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에 걸쳐 안정화되는 물질화의 과정으로”<sup>46)</sup> 재정립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문제적인 주장, 즉 물질, 다시 말해 몸은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구성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달리 무언가를 고정된 본질로서 만들어내는 일회적이고 결과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sup>47)</sup> 즉 구성을 통해 물질이라는 고정된 결과물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물질화라는 과정 자체이며 따라서 언제나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다만 시간성 속에서 안정된 경계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몸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몸의 경계들을 수립하는 담론들을 통해 ‘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sup>48)</sup>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몸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결정하는 경계선들과 그것이 그어지는 방식을 추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버틀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몸들이 구성되는 방식과 그러한 구성의 목적을 밝히고, 이와 동시에 “몸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지 못하는가”<sup>49)</sup>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몸의

---

45) Butler: *Bodies that matter*, p. x: “Which bodies come to matter—and why?”

46) Butler: *Ibid*, p. xviii: “not as site or surface, but as a *process of materialization that stabilizes over time to produce the effect of boundary, fixity, and surface we call matter*”

47) 전혜은: *섹스화된 몸*, 182쪽 참조.

48) 전혜은: *같은 책*, 195쪽 참조.

구성에 관한 논의는 다시금 구성의 과정에 언제나 관여하고 있는 담론권력과 이로 인해 자명한 물질, 즉 실질적인 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된 존재들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인형극에 대하여」에서 나타나는 한 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의 몸, 동물의 몸 그리고 기계의 몸은 현실의 상징질서에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몸과는 거리가 멀다. 무용수는 이들의 몸이 보다 우미가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텍스트적 층위에서 우미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현실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 우미는 성별, 인종, 계급 등 현실의 다양한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변별적으로 물질화시킨다. 이 지점에서 무용수의 주장은 버틀러의 비체 논의와 교차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버틀러는 물질로 구성되지 못한 존재들, 즉 살아있는 실질적인 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몸을 탐구한다. 버틀러는 더글라스와 크리스테바의 논의를 전유하여 이들을 사회적 삶의 “살아질 수도 없고 ‘거주할 수도 없는’ 영역들 ‘unlivable’ and ‘uninhabitable’ zones of social life”<sup>49)</sup> 즉 ‘비체 abject’라고 부른다. 그런데 버틀러는 비체가 단순히 배제된 외부의 영역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으로 인정을 받아 주체의 위상을 누리는 존재들의 내부에 언제나 내포되어있다는 모순적인 설명을 내놓는다. 이것은 몸의 안정적인 윤곽과 경계의 수립이 비체들의 축출과 배제를 통해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몸이라는 경계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가려내는 과정을 통해 수립되고, 따라서 주체는 자신과 비체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통해 비체와 연관됨으로써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버틀러는 비체를 절대적인 외부가 아닌 ‘구성적 외부 constitutive outside’로 정의한다.<sup>51)</sup>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과 동물, 기계의 몸은 비체로 간주될 수 있다.<sup>52)</sup> 버틀러가 “인간적인 것의 구

---

49) Butler: op. cit., p. 16: “how and to what end bodies are not constructed?”

50) Butler: Ibid, p. xiii

51) cf. Butler: Bodies that matter, p. 3.

52) 비체와 관련된 논의에서 버틀러의 관심은 남/여 이원론과 강제적 이성애 체계

성은 좀 더 인간적인 것, 좀 덜 인간적인 것, 비인간적인 것, 그리고 인간으로 생각되어질 수 없는 것 등을 산출하는 차별적인 작용과정”<sup>53)</sup>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런데 무용수는 현실의 위계를 전도 시킴으로써 주체와 비체를 생산하는 기존의 상징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미가 단순한 미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미는 그 자체로 사회적인 장에서 담론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우미는 다시 몸들을 만들어내는 규범적인 이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서술자가 무용수에게 들려준 한 소년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얼마 전 파리에 갔을 때 발에서 과편을 뽑아내는 소년

---

가 몸을 물질화시키는 과정, 즉 섹스화된 몸의 생산에 있다. 버틀러가 보기에 사회적 성으로 일컬어지는 젠더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로 여겨지는 섹스 역시도 담론권력의 구성물이다. 버틀러는 신생아가 인간다워지는 순간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곧 남성 혹은 여성의 범주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몸의 형태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버틀러의 비체 논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 계급, 건강 등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버틀러는 한 인터뷰에서 직접 비체는 성적인 영역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비체는 “삶”으로 간주되지 않는 삶을 사는 모든 종류의 몸들, “물질”로 이해되지 않는 물질성을 가진 모든 종류의 몸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폐쇄적인 민족 개념으로 인해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도로와 대중교통, 건물 건축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이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도 비체에 관한 논의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해은: 섹스화된 몸, 255-257쪽 참조.

53) Butler: op. cit., p. 8: “Hence, it is not enough to claim that human subjects are construct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uman is a differential operation that produces the more and the less “human,” the inhuman, the humanly unthinkable.”

의 조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모조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독일 대부분의 미술관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발을 닦으려고 발판 위에 디딘 순간 그는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조각상을 떠올렸습니다. [...] 그는 얼굴을 붉히며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로 자신의 발을 들어올렸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러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세 번, 네 번 발을 들어올렸고, 아마 열 번은 더 발을 들어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지요. 그는 같은 동작을 다시 해낼 수 없었습니다.

Es traf sich, daß wir grade kurz zuvor in Paris den Jüngling gesehen hatten, der sich einen Splitter aus dem Fuße zieht; der Abguß der Statue ist bekannt und befindet sich in den meisten deutschen Sammlungen. Ein Blick, den er in dem Augenblick, da er den Fuß auf den Schemel setzte, um ihn abzutrocknen, in einen großen Spiegel warf, erinnerte ihn daran; [...] Er errötete, und hob den Fuß zum zweitenmal, um es mir zu zeigen; doch der Versuch, wie sich leicht hätte voraussehen lassen, mißglückte. Er hob verwirrt den Fuß zum dritten und vierten, er hob ihn wohl noch zehnmal: umsonst er war außerstande dieselbe Bewegung wieder hervorzubringen. (ÜM343)

발에서 파편을 뽑아내는 소년의 조각상은 우미라는 아름다움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체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한 수많은 조각상들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독일 미술관이 모조품을 소장하고 있을 만큼 이 조각상은 우미의 표준이 된다. 그런데 이 소년의 조각상은 단지 예술가들의 모사 대상으로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까지도 이 조각상을 모방하려 한다. 서술자와 함께 목욕을 하던 한 소년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조각상을 모방하여 우미를 체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여기에서 우미는 단순히 더 아름다움과 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몸들을 변별해내는 규제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 이상으로서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몸의 물질화를 관장하는 규범들은 단순히 몸을 규제하고 배제할 뿐만 아니라 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버틀러는 푸코적인 의미에서 몸을 물질화시키는 권력이 ‘규제적 regulatory’인 동시에 ‘생산적 productive’이라고 주장한다.<sup>54)</sup> 이러한 의미에서 조각상을 따라하는 소년의 몸은 우미에 의해 각인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년이 우미라는 규범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미는 결코 달성되지 못한다. 물론 첫 번째 순간에 그의 몸이 잠깐 우미가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이후 수차례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우미를 완벽하게 모방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의 반복적인 모방과 특정한 형태의 몸의 생산 그리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실패의 가능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물질화 규범으로서 ‘섹스’에 관한 버틀러의 논의와 닮아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버틀러는 섹스가 젠더와 달리 부정할 수 없는 생물학적 진실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섹스 역시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버틀러에 따르면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라는 이원론적 형태의 섹스는 규범적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구성된 섹스는 다시금 이러한 형태에 맞게 몸을 산출해내는 규제적 이상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동일시라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sup>55)</sup> 자신의 몸을 우미라는 이상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소년의 모습에서 이러한 동일시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선 이러한 동일시가 의지를 가진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여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미를 강제로 생산함으로써 반복되는 규제적 장치에 의해 이러한 동일시가 강제되는 것이다.<sup>56)</sup> 이러한 의미에서 동일시는 의도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로서의 ‘수행 performance’이 아니라 강요된 규범들의 반복적인 실천으로서 ‘수행성

---

54) cf. Butler: Bodies that matter, pp. 9-10.

55) 전혜은: 섹스화된 몸, 214-221쪽 참조.

56) 전혜은: 섹스화된 몸, 220쪽 참조.

performativity'<sup>57)</sup> 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58)</sup> 또한 물질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동일시는 완결된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규범적 이상에 딱 들어맞는 완결된 동일시란 있을 수 없고 반복의 과정 자체에 실패의 가능성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sup>59)</sup> 버틀러는 성별이원론에 맞는 몸들, 즉 규범에 순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규범을 반복함으로써 성공된 상태로 머무르고자 노력할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몸이 우미가 있도록 만들기 위한 소년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것의 실패 역시 예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인형극에 대하여」에서 나타나는 우미에 대한 분석이 버틀러의 몸에 관한 논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컨대 거울 앞에서 우미를 모방하기 위한 소년의 노력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반복 행위라는 점에서, 오히려 버틀러가 수행성과 구분하려고 했던 수행에 가깝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미라는 이상적 규범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소년의 모습으로부터 버틀러가 이야기한 현실의 여러 규범들에 의해 변별적으로 물질화되는 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미에 관한 에피소드와 버틀러의 몸에 관한 논의가 겹쳐지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클라이스트의 몸담론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

---

57) “담론은 수행성을 통해서 효과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행성 개념은 인간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에 자신에 의해 규제되고 속박되는 현상들을 생산하는 담론의 반복적인 권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버틀러는 ‘행위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버리지는 않지만, 의지주의적 주체에 기반한 기존의 자율적 행위성 개념을 지양하기 위해 행위성을 수행성 안에 배치한다. 수행성은 권력의 억압적 측면과 생산적 측면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개념 틀이자, 완전한 종속 대 완전한 자유, 혹은 권력 대 주체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서 권력의 작동과 주체의 작동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개념 틀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버틀러가 수행성을 철저히 반복과 인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실린 곳: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제 19권2호(2011), 159-160쪽.

58) cf. Butler: op. cit., p. 2.

59) Butler: Bodies that matter, p. 102.

형극에 대하여」에서의 우미는 서로 다른 몸들을 구분 짓고 이에 따라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기준이며 동시에 특정한 몸을 만들어내는 규제적 이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사회적 장 속에서 구성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몸들 사이의 위계를 뒤집어놓는 무용수의 전복적인 주장은 특정한 형태의 몸을 강제하는 동시대의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Ⅲ. 정신의 타자로서 몸: O...후작부인의 임신

#### 3.1. 정신과 몸의 분열

클라이스트의 노벨레인 「O...후작부인」에서는 괴테가 정의한 장르 규정에 걸맞게 그 시작에서부터 ‘전대미문의 사건 unerhörte Begebenheit’<sup>60)</sup>이 펼쳐진다.

북부 이탈리아의 한 주요도시인 M...에서 평판이 훌륭한 귀부인이자 잘 자란 두어 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인 미망인 O...후작부인이 여러 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그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그녀가 낳게 될 아이의 아버지는 연락해주기를 바라며, 그녀는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In M..., einer bedeutenden Stadt im oberen Italien, ließ die verwitwete Marquise von O..., eine Dame von vortrefflichem Ruf, und Mutter von mehreren wohlerzogenen Kindern, durch die Zeitungen bekannt machen: daß sie, ohne ihr Wissen, in andre Umstände gekommen sei, daß der Vater zu dem Kinde, das sie gebären würde, sich melden solle; und daß sie, aus Familienrücksichten, entschlossen wäre, ihn zu heiraten.(MO104)

위의 구절에서 언급된 전대미문의 스캔들의 중심에는 O...후작부인의 몸

---

60) “그러니까 말이네”라고 괴테가 말했다. “우리는 이것에 ‘노벨레’라는 이름을 붙이고자하네. 왜냐하면 노벨레란 다름 아닌 전대미문의 사건을 말하기 때문이네.” “Wissen Sie was,” sagte Goethe, “wir wollen es die ‘Novelle’ nennen; denn was ist eine Novelle anders als eine sich ereignete, unerhörte Begebenheit.” Johann Peter Eckermann: Gespräch mit Goethe in den letzten Jahren seines Lebens. München 1988, S. 194–195.



이 있다. 즉 후작부인의 몸이 문자 그대로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in andre Umstände gekommen sei’는 것이 이 스캔들의 핵심이다. 후작부인의 몸에 일어난 변화, 즉 그녀의 임신을 기점으로 사태는 급변한다. 상황의 급격한 전환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은 클라이스트가 쓴 노벨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주로 자연재해, 전염병, 정치적 소요 같은 거대한 사건이 혼란의 원인이 된다면, 이 소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의 시작에는 개인의 몸에 일어난 사소한 변화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층위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은 여타 거대한 사건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지며 기존의 질서를 뒤흔든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변화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그로 인해, 혼란을 경험한다. 후작부인이 최초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감지한 것은 러시아 장교, 즉 F...백작이 전장에서 갑작스레 죽었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전달되고 나서 여러 달이 지난 이후이다. 그녀는 일찍이 백작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다가 어렵사리 그를 잊게 된다. 그 후 후작부인의 가족은 요새를 점령한 러시아군에게 저택을 내어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인해 벌어졌던 혼란이 모두 잦아들고 안정된 질서를 되찾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 직후 후작부인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난다. 질서의 안정과 몸의 변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것이 예전의 질서로 되돌아갔다. Alles kehrte nun in die alte Ordnung der Ding zurück.”는 (MO109) 문장은 역설적으로 사태의 급변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후작부인은 우선 구역질, 현기증, 기절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기이한 몸 상태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 wußte nicht, was sie aus diesem sonderbaren Zustand machen solle.” (MO109) 후작부인은 몸에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이 낯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후작 부인은 이 변화의 정체를 직감하는 듯 보인다. 처음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상태가 임신한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이 대화는 이내 농담으로 무마되고 그녀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기이한 느

김을 부정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작부인의 몸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몸매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된다. Sie bemerkte eine unbegreifliche Veränderung ihrer Gestalt.” (MO119) 그리고 결국 어머니에게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다고 [...] wisse nicht, was sie von ihrem Zustand denken solle” (MO119) 털어놓는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후작부인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후작부인의 모습은 서구 형이상학의 유서 깊은 이원론, 즉 ‘정신 Psyche’과 ‘몸 Physis’의 이원론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후작부인의 몸에 일어난 변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삶의 주체로서 정신과 대상으로서 몸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서로 다른 두 가지 속성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은 로고스중심주의적 전통에서 오래도록 이어져왔다. 후작부인이 겪는 혼란은 이러한 심신이원론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며, 특히 정신과 몸을 서로 완전히 다른 실체로 보는 데카르트적인 구분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sup>61)</sup> 즉 후작부인의 사유하는 정신과 구체적인 물질로서 그녀의 몸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작부인에게서 문제는 정신과 몸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단순히 분리되는 것일 뿐 아니라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후작부인 안에서 정신과 몸이 서로 분열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존재론에 애초부터 내재해있다. 데카르트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서로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순수한 정신과 순수한 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sup>62)</sup>

정신과 몸의 결합으로서 인간 존재의 내적분열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클라

---

61)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를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전제했고,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신과 몸을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실체로 정의 내렸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둘을 서로 다른 ‘속성’을 근거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정신은 사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것의 속성은 ‘사유하는 것 *res cogitans*’이고 물체는 구체적인 공간을 차지함으로써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의 속성은 ‘연장된 것 *res extensa*’이다

이스트의 다른 텍스트인 「인형극에 대하여」를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 텍스트는 18세기 미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미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우미란 본래 정신과 몸의 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용수라는 인물은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우미가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우미를 순수한 정신으로서의 신 또는 순수한 몸으로서의 마리오네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인간존재를 이루는 정신과 몸 사이의 조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양자의 조화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필연적 분열은 정신과 몸의 구분 자체에 배태되어 있다. 무용수는 성서를 인용함으로써 정신과 몸의 구분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즉 ‘원죄 Sünde’로 비유한다.

무용수의 성서 인용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과 몸을 분리해서 생겨난 비극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몸짓에서 우미가 사라져버린 것은 “인식의 나무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불가피 unvermeidlich, seitdem wir von dem Baum der Erkenntnis gegessen haben”한 (ÜM342) 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본래 성경에서 인식의 나무는 ‘선과 악의 구분을 알게 하는 나무 Baum der Erkenntnis von Gut und Böse’를 의미한다. 하지만 무용수가 주장하는 우미의 상실이라는 맥락에서는 이것을 ‘몸과 정신의 구분을 알게 하는 나무 Baum der Erkenntnis von Körper und Geist’로 읽을 수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선과 악의 구분을 알게 된 아담과 이브처럼, 정신과 몸을 구분하기 시작한 인간은 “순결함을 잃고 이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결코 처음과 같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seine Unschuld verloren, und das Paradies derselben, trotz aller ersinnlichen Bemühungen, nachher niemals wiedergefunden.” (ÜM343) 정신과 몸의 구분은 인간을 우미의 낙원으로부터 추방한 원죄인 셈이다. 이러한 비유로써 무용수는 인간이 자신의 정신과 몸을 분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어떠한 방식으로 양자를 조화시키려 해도 분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정신과 몸의 결합으로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딜레마는 둘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립함으로써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sup>63)</sup> 즉

몸을 정신의 지배 아래 두어 정신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신이원론에는 언제나 정신 우위의 위계질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정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한다.<sup>64)</sup> 하지만 정신이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몸과 정신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인형극에 대하여」에서 무용수가 정신과 몸의 분리를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원죄로 보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정신의 무능을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이 후작부인에게 일어난다. 후작부인의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작부인이 경험하는 혼란으로부터 정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며, 이를 로고스중심주의적 전통을 겨냥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로 읽을 수 있다.

후작부인의 정신과 몸의 분열은 그녀의 몸에 일어난 변화가 보다 뚜렷해지면서 본격화된다. 하지만 그녀가 둘의 분열로 인해 혼란을 겪기 훨씬 이전에 이미 정신과 몸의 일치가 깨지게 된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후작부인의 임신의 계기가 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 후작부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때다. 후작부인이 임신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임

63) 앞서 언급했듯 데카르트는 정신과 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송과선이라는 가설을 도입한다. 그에 따르면 송과선이란 뇌의 뒷부분에 있는 정신과 몸의 결합 지점으로 이를 통해 정신이 자신의 의지를 몸에 전달하고 또한 몸이 자신의 활동을 정신에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주체적 자아가 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정신과 몸이라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실체를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화합시키기 위해서 둘 사이에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박삼열: 데카르트 실체 개념의 문제점과 후대 합리론자들의 해결방안. 실린 곳: 철학논집 제20집(2010), 139-142쪽 참조.

64) 데카르트에게서 정신은 몸과 철저히 구분되는 진정한 자아이자 무한한 실체로서 신을 인간과 매개해주는 특권적인 위상을 갖는다. 반면 몸은 사유하는 정신으로서의 인간에게는 객체와 대상일 뿐이며 다른 모든 물체와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기계이다. 몸이 '나'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 타자라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됨으로써 그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규정에서 어떠한 가치도 갖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따라서 몸에 대한 정신의 일방적인 통제와 규율은 데카르트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며 그것의 원활한 작동도 의심되지 않는다.

신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난다. 후작부인은 죽은 줄로 알았던 F...백작이 가족을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고 난 이후 임신의 기미를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이때 백작은 뜬금없이 후작부인에게 청혼을 하더니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요하게 그녀의 가족에게 결혼에 대한 약속을 다짐받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업무를 포기하려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녀의 가족은 백작의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대목에서 이루어지는 서술은 백작이 후작부인을 임신하도록 만든 범인임을 여러 차례 암시한다.<sup>65)</sup> 이러한 암시로 인해 서술이 중단되었던 긴 줄표가 후작부인에 대한 백작의 강간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를 통해 후작부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혼란의 시작에는 정신의 무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후작부인의 몸에 일련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추적해보면, 전쟁이 발발하고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후작부인이 병사들에게 추행을 당하려던 찰나에 러시아 장교, 즉 백작이 나타나 그녀를 구한다. 그가 불길을 피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을 때 갑자기 서술이 중단되고 긴 줄표가 그어진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시점에 후작부인이 백작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하게 된다. 여러 연구들은 긴 줄표로 생략된 서술의 공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왔는데,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술이 중단되기 이전에 일어난 후작부인의 기절이다. 후작부인의 임신은 “그녀가 완전히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sie auch völlig bewußtlos niedersank” (MO 106) 때, 그러니까 그녀가 “기절 Ohnmacht”한 (MO 106)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그녀의 정신과

---

65) 우선 백작이 가족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그녀의 몸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이었다. seine erste Frage war gleich, wie sie sich befinde?” (MO 110).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설득하려 하면서 “그가 살면서 유일하게 저질렀던 수치스러운 행동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daß die einzige nichtswürdige Handlung, die er in seinem Leben begangen hätte, der Welt unbekannt, und er schon im Begriff sei, sie wieder gut zu machen” (MO 114)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되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후작부인의 가족을 떠나면서 “그녀가 그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es würde ein Tag kommen, wo sie ihn verstehen würde!” (MO 119)라는 말을 남긴다.

몸은 기절이라는 독일어 표현인 'Ohnmacht'의 글자 그대로의 뜻처럼 둘 다 무력한 상태였고 따라서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달리 말해 이것은 데카르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진 순간이다. 따라서 정신은 몸에 일어난 변화의 순간을 놓쳤고 임신이라는 몸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정신이 지배력을 상실한 순간 몸은 자신을 관장하는 정신의 통제권 바깥으로 이탈한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후작부인의 정신과 몸의 조화가 깨어진다.

이렇게 후작부인의 정신이 그녀의 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몸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이후 후작부인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이상한 몸의 변화로 인해 후작부인이 자신의 임신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런 후작부인에게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을 것을 권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채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이상한 종류의 감정이 자신을 극심한 불안으로 몰아넣을 때까지 며칠을 더 보냈다.

[...] sie brachte mehrere Tage noch, ohne dem Rat der Mutter zu folgen, unter den empfindlichsten Leiden zu: bis Gefühle, immer wiederkehrend und von so wunderbarer Art, sie in die lebhafteste Unruhe stürzten. (MO120)

위의 인용문에서 후작부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불안을 묘사하는 데 반복해서 최상급의 표현이 사용된다. 이처럼 정신이 자신의 몸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한 개인의 존재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즉 후작부인의 갑작스러운 임신이라는 사건을 통해 로고스중심주의적 전통에서 공고히 유지되어 온 정신과 몸 사이의 위계질서가 흔들림으로 인해 존재론적 위기를 맞게 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3.2. 로고스와 감각의 위계질서의 전복

「O...후작부인」의 첫머리는 자신도 모르게 임신을 하게 된 귀부인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 광고를 내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서사의 초점은 과연 후작부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즉 그녀를 임신시킨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놓이게 된다. 시작부분에서 던져진 후작부인의 임신과 관련된 수수께끼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풀린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러한 비밀을 밝혀나가는 과정, 다시 말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이 놓여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이야기는 추리소설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 독자가 후작부인을 임신하게 만든 범인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작품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sup>66)</sup> 하지만 적어도 서사세계의 인물들에게는 범인이 누구인지 계속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야 드러나게 된다.<sup>67)</sup> 다시 말해 「O...후작부인」에서는 추리소설에서처럼 독자와 인물이 함께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는 이미 드러나 있는 진실을 인물들이 알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물들이 왜 진실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또한 어떻게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해진다.

앞과 진실의 문제는 클라이스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이 문제는 「O...후작부인」에서 볼 수 있듯이 작중 인물과 수용자 그리고 서술자의 층위를 아우르며 복잡하게 얽혀있다.<sup>68)</sup> 그런데 이

---

66) Vgl. Breuer(Hrsg.): Kleist Handbuch, S. 110.

67) 벤첼의 연구에서 언급되다시피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후작부인 아이의 아버지가 긴 줄표 이후로 분명하게 밝혀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부 비평가들은 독자역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후작부인의 임신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벤첼은 이 문제와 관련해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식론적 모호함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cf. Bentzel: Knowledge in narrative, pp. 296-303.

작품에서는 후작부인을 강간한 범인을 찾는 것 외에도 진실과 앎의 문제가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예컨대 후작부인이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 후작부인의 어머니가 딸의 결백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끝까지 알 수 없는, 서술이 중단되었던 긴 줄표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한 진실의 문제가 있다. 이 가운데 여기에서는 후작부인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감지하고 이것이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임신이라는 사건을 몸에 대한 정신의 통제 실패, 즉 정신과 몸의 분열로 보는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앎과 진실의 문제를 조명해볼 것이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O...후작부인」에서 몸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신과 그로 인해 일어난 정신과 몸 사이의 분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데카르트에 의해 주장된 정신과 몸의 이원론적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단지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신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정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몸이 알고 있다는 전복적인 성격이 더해진다. 정신이 우위를 잃음으로 인해 이원론적 질서의 위계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것의 전도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신과 몸의 이원론적 구도에서 앎, 즉 ‘인식 Erkenntnis’은 주체인 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반면, 몸은 인식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런데 「O...후작부인」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는 몸이 등장하여 이러한 구도를 뒤집어놓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처음으로 감지했을 때 후작부인은 사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후작부인은 어느 때와 달리 반복해서 거부함을 느낀다. 그리고 가족들과 차를 마시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 aus einer langen

---

68) 클라이스트의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상과 편견, 인습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진실의 인식에 가로막힌 인물들을 보면서 독자도 자신의 인식 가능성을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는 잘못된 판단과 가치평가를 반복하는 서술자의 서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클라이스트는 독자가 단순하게 수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로서 비판적인 독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Vgl. Breuer(Hrsg.): Kleist Handbuch, S. 308.



Gedankenlosigkeit erwachend” (MO109) 어머니에게 “만약 한 여성이 지금 찻잔을 쥐고 있는 저와 같은 것을 느낀다면, 저는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 wenn mir eine Frau sagte, daß sie ein Gefühl hätte, ebenso, wie ich jetzt, da ich die Tasse ergriff, so würde ich bei mir denken, daß sie in gesegneten Leibesumständen wäre” (MO 109)라고 털어놓는다. 어머니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후작부인은 “자신에게 지금 두 번째 딸을 임신했을 때와 같은 감각을 느낀다고 [...] daß sie eben jetzt eine Sensation gehabt hätte, wie damals, als sie mit ihrer zweiten Tochter schwanger war” (MO 109)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녀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Gedankenlosigkeit”라는 찰나에 문득 자신이 임신했다는 진실을 감지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다시금 「인형극에 대하여」를 연상시킨다. 「인형극에 대하여」에서 사유하는 정신이 배제된 순수한 몸인 마리오네트에게서 우미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유가 멈춘 순간에 후작부인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정신이 없는 곳에 우미가 깃들었듯이, 정신이 없는 곳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진실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후작부인이 몸으로 느끼는 ‘감각 Gefühl’이다. 하지만 후작부인은 어머니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시 이러한 고백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화를 아버지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를 틈타 어머니하고만 나눈다는 점에서 후작부인은 이미 어느 정도 진실을 감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진실에 대한 앎을 둘러싼 정신과 몸의 대결은 이성과 감각의 대결로 구체화된다. 후작부인은 이성보다 감각을 더 신뢰하면서 결국 몸으로 느끼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후작부인은 결국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는다. 의사가 그녀의 임신을 확인해준 이후 후작부인은 안절부절 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후작부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임신이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묻는다. 후작부인이 그럴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하자 “너의 의식이 너를 결백하다고 말한다면 Wenn dein

Bewußtsein dich rein spricht” (MO 121)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달랜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의식 Bewußtsein’이라는 단어는 이후에도 몇 번 반복된다.<sup>69)</sup> 이것은 맥락상 ‘양심 Gewissen’이라는 단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헤르빅이 자신의 연구에서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단어의 대체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70)</sup> 즉 몸과 대비되는 정신적 능력으로서 의식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후작부인의 어머니는 그녀의 정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작부인은 이와 같은 요구에 맞서 자신의 의식을 거스르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 신이시여! 후작부인은 몸을 바르르 떨며 이야기했다. 어떻게 제가 진정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의 이 감각이 저를 거스르고 있는걸요?

O Gott! sagte die Marquise, mit einer konvulsivischen Bewegung: wie kann ich mich beruhigen. Hab ich nicht mein eignes, innerliches, mir nur allzuwohlbekanntes Gefühl gegen mich? (MO 121)

---

69) 이후 후작부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으니 저는 맹세합니다. 제 양심은 저의 아이의 양심처럼 깨끗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양심도 이보다 깨끗할 수는 없을 거예요. Ich schwöre, weil es doch einer Versicherung bedarf, daß mein Bewußtsein, gleich dem meiner Kinder ist; nicht reiner, Verehrungswürdigste, kann das Ihrige sein.” 라고 (MO122) 이야기한다. 그리고 후작부인이 임신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산파를 불러줄 것을 어머니에게 요청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양심은 결백한데, 산파를 부르라고! Ein reines Bewußtsein, und eine Hebamme!”라고 (MO122) 외친다.

70) 헤르빅은 클라이스트가 인물들의 대화에 ‘양심 Gewissen’이라는 단어 대신에 ‘의식 Bewusstsein’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의식이 나가고 임신이 시작된 순간을 다시 지시한다고 해석한다. Vgl. Herwig: Unwillkürlicher Körperausdruck und rhetorische Beredsamkeit des Leibes in Kleists Novelle *Die Marquise von O...*, S 69.

의식이 이야기하는 바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어머니와 의식을 거스르는 감각을 더 신뢰하는 후작부인의 대립은 곧 정신의 능력과 몸의 능력의 대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에서 어머니의 주장이 아니라 후작부인의 주장이 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대립 구도에서 몸의 능력인 감각은 정신의 능력인 의식을 압도하게 된다. 이것은 로고스중심주의적인 전통에서 몸과 관련을 맺는 감각이 순수한 정신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전복시킨다.<sup>71)</sup> 이성과 감각 사이의 대립은 후작부인의 임신 가능성을 두고 후작부인과 그녀의 어머니가 나누는 이후의 대화에서 보다 뚜렷해진다.

네가 지난 일을 그토록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여 이토록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마음속에서 이는 감각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속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작부인이 말했다. 이 감각은 저를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산과를 불러주신다면, 이 끔찍하고 저를 과멸에 빠뜨리는 감정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G...부인은 딸이 이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겁이 나기 시작했다.

Wenn dein Gedächtnis über die Vergangenheit so sicher ist, welches ein **Wahnsinn** der Furcht ergriff dich? Kann ein innerliches **Gefühl** denn, das doch nur dunkel sich regt, nicht trügen? Nein! Nein! sagte die Marquise, es trügt mich nicht! Und wenn Sie die Hebamme rufen lassen wollen, so werden Sie hören, daß das Entsetzliche, mich Vernichtende, wahr ist. Komm, meine liebste Tochter, sagte Frau von

---

71) 근대의 합리주의적 사유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감각 활동 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사유, 즉 정신 활동에 포함시키면서도 순수한 사유를 위해서는 감각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성의 능력이었다. 합리주의 전통에서는 이처럼 몸과 감각이 정신과 이성과 비교해 폄하되어왔다. 데카르트(최명관 역): 방법서설•성찰, 167쪽 참조.

G..., die für ihren Verstand zu fürchten anfang. (MO 123, 밑줄과 굵은 표시는 필자의 강조.)

이 대화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자신의 임신을 감지하는 후작부인에게 다시 그녀의 기억력과 이성, 즉 정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감각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타이른다. 어머니에게 감각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 대신 감각을 신뢰하는 후작부인의 이야기가 정신 나간 소리로 여겨진다. 어머니는 후작부인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온 산과에게도 자신의 딸이 “이해할 수 없는 감각에 속아 von einer unbegreiflichen Empfindungen getäuscht” (MO123) 그녀를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어머니에게 몸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감각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이성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러한 주장에 맞서 후작부인은 줄곧 감각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성과 감각의 대립 구도 및 이러한 구도에 담겨있는 위계질서의 전복은 의사와 산과의 대비를 통해 되풀이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작부인은 우선 의사를 불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진찰을 받는다. 후작부인은 의사에게 자신이 스스로의 몸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바, 즉 임신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농담하듯이 털어놓는다. 의사는 후작부인을 진찰한 뒤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임신을 확인해준다. 후작부인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의사는 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그녀의 몸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의사가 떠난 후 후작부인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의사의 진단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는데 마침 집을 비웠던 어머니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의사의 언행에 분노하며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려는 어머니와 달리, 후작부인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한다. 그녀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는 의사의 진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의사가 “실수 Irrtum”로 (MO121) 오진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산과를 불러줄 것을 요청한다. 후작부인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다.

후작부인은 의사와 산과의 방문을 통해 자신의 임신을 두 차례 확인받는다. 의사가 먼저 후작부인의 집을 방문해 그녀의 임신을 확인시켜주었지만, 후작부인은 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산과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다시금 진찰받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산과는 후작부인의 임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산과의 방문으로 인해 후작부인은 자신의 임신을 마침내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된다. 의사와 산과의 방문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들이 후작부인을 방문하여 그녀의 임신을 사실로 확인해주고 그녀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답해준 뒤 그녀의 요청에 따라 방을 떠난다. 임신과 관련해 의사와 산과가 후작부인에게 제공해준 정보는 다르지 않지만, 그녀는 의사가 아닌 산과의 진단을 신뢰한다. 이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후작부인의 임신을 대하는 상반된 반응에서 나타난다. 의사는 후작부인의 몸을 면밀히 진찰하고 그녀의 임신을 확인한 뒤 조소를 보낸다. 하지만 산과는 후작부인을 진정시켜주고 이 경우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는 합리적인 이성에 기반을 둔 근대적인 지식 체계의 대표자이자 인간으로부터 몸을 분리시켜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과는 경험을 통해 축적된 앎을 바탕으로 출산이라는 사건을 겪는 여성을 돕는 몸의 조력자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신의 대표자로서 의사보다 몸의 조력자로서 산과를 더 신뢰하는 후작부인의 모습은 이전에 논의했던 이성과 감각의 대립관계에서 감각이 우위에 놓인 구도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작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임신하고 그러한 임신을 몸의 감각을 통해 확인한 뒤 마침내 임신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개인의 층위에서 정신과 몸의 분열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앎과 진실을 둘러싸고 이성과 감각, 즉 정신과 몸 사이에 각축이 벌어지고 로고스중심주의적인 전통에서 확립된 위계질서가 전복된다. 이 가운데 후작부인은 여러 차례 기절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기절 장면은 분열과 극복의 분기점마다 삽입되어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후작부인은 임신의 계기가 된 사건, 즉 백작에 의한 강간이 일어났을

당시 기절해있었다. 이렇게 정신이 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무력했던 순간에 정신과 몸의 일치가 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작부인이 기절하게 되는 장면은 산파로부터 임신 사실을 확인받는 시점이다. 산파는 후작부인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어느 날 밤에 찾아왔던 이 해적이 누구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바로 이 말을 듣고 후작부인은 기절했다. Bei diesen Worten fiel die Marquise in Ohnmacht.” (MO124) 여기서 기절은 다시금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신의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산파의 방문 이후 후작부인은 자신의 임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기절에서 깨어난 이후 후작부인은 산파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sie habe wissentlich empfangen”고 (MO124)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후작부인은 자기 자신을 다잡고, 산파에게 자신의 상태가 나아졌으니 그만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so sammelte sie sich, sagte, sie befände sich besser, und bat ihre Gesellschafterin sich zu entfernen.” (MO124) 이는 곧 후작부인이 의식 차원에서 임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신과 몸의 분열이 해소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의 무능으로 인해 일어난 후작부인의 내적인 분열은 몸의 능력으로 인해 비로소 봉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진실을 몸으로 알게 되고, 이를 다시 정신이 받아들임으로써 후작부인의 존재론적 위기는 해소된다. 이렇게 해서 후작부인이라는 개인의 층위에서 일어났던 갈등은 해결되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 IV. 몸에 관한 담론적 규율을 넘어서

### : O...후작부인의 광고

#### 4.1. 담론적 규율 외부의 몸

「O...후작부인」의 첫머리는 후작부인이 자신의 임신을 알리는 신문광고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 광고의 내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후작부인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 이탈리아의 한 주요도시인 M...에서 평판이 훌륭한 귀부인이자 잘 자란 두어 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인 미망인 O...후작부인이 여러 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세간의 비웃음을 불러일으킬 조치를 이처럼 단호하게 취한 그 부인은 M.의 근처 요새 사령관인 G...경의 딸이었다. 그녀는 약 삼 년 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했던 남편 O...후작을 가족의 일 때문에 파리로 떠났던 여행길에서 여의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후작부인은 그녀의 기품 있는 어머니인 G...부인이 바라는 대로 이전까지 살고 있던 V. 근처 영지를 떠나 자신의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인 사령관의 집으로 돌아왔다.

In M..., einer bedeutenden Stadt im oberen Italien, ließ die verwitwete Marquise von O..., eine Dame von vortrefflichem Ruf, und Mutter von mehreren wohlerzogenen Kindern, durch die Zeitungen bekannt machen: [...] Die Dame, die einen so sonderbaren, den Spott der Welt reizenden Schritt, beim Drang unabänderlicher Umstände, mit solcher Sicherheit tat, war die Tochter des Herrn von G..., Kommandanten der Zitadelle bei M... Sie hatte, vor ungefähr drei Jahren, ihren Gemahl, den Marquis von O..., dem sie auf das innigste und zärtlichste zugetan war, auf einer Reise verloren, die er, in Geschäften der Familie, nach Paris gemacht hatte. Auf Frau von

G...s, ihrer würdigen Mutter, Wunsch, hatte sie, nach seinem Tode, den Landsitz verlassen, den sie bisher bei V... bewohnt hatte, und war, mit ihren beiden Kindern, in das Kommandantenhaus, zu ihrem Vater, zurückgekehrt. (MO104)

후작부인에 관해 언급된 정보들을 모아보면, 그녀는 평판이 훌륭한 귀부인이자 잘 키워낸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한 도시 사령관의 딸이다. 지금은 미망인이지만 O...후작의 부인으로 남편을 진심 어리게 사랑했다. 그남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후작부인을 소개하기 위해 나열해 놓은 내용들이 규범을 위반하기 이전의 후작부인이 지녔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이후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지만,<sup>72)</sup> 이것은 단순히 인물의 고유한 성격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열된 내용은 가부장적 담론이 요구하는 모범적인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후작부인에 대한 소개는 알튀세르의 호명 이론을 떠오르게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따라 특정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작부인을 묘사하는 내용들은 개인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즉 여성의 존재 양식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후작부인은 이러한 이상적인 여성상을 잘 따르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O...후작부인에 관해 언급된 내용들은 모두 가족질서 안에서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즉 이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누군가의 딸이자 부인, 그리고 어머니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노벨레에서 인물을 지칭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인물을 지칭할 때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드물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인물의 신분과 직업 그리고 가족질서 안에서의 명칭을 사용한다.<sup>73)</sup> 이것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물

---

72) Vgl. Gnam: Die Rede über den Körper. Zum Körperdiskurs in Kleists Texten *Die Marquise von O...* und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S. 174.



의 특성보다 사회질서, 특히 가족질서 안에서 인물의 역할에 주목하게 만드는데, 남성 인물들은 ‘사령관 Kommandant’, ‘대령 Obrist’, ‘백작 Graf’, ‘산림관 Forstmeister’처럼 자신이 종사하는 독자적인 직업과 신분으로 불리는 반면, 여성 인물들은 ‘대령부인 Obristin’, ‘후작부인 Marquise’, ‘백작부인 Gräfin’처럼 남성 인물의 부인 내지 딸과 어머니로만 불린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위상에 대해 이리가레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부장적인 상징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과 관련되어서만 정의되는 것이다.<sup>74)</sup> 그리고 남성의 활동 영역은 가족과 사회라는 영역을 포괄하지만 여성은 오직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 머무르기를 요구받는다.

후작부인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공동체로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 가족질서가 규율된다. 후작부인은 결혼한 이후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남편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이 죽은 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온다. 이는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귀속되는 가부장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 장교, 즉 F...백작이 가족 앞에 나타나 급작스럽게 후작부인에게 구혼을 할 때, 가족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가부장적인 권위가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어적인 층위와 비언어적인 층위 모두에서 나타난다. 우선 죽은 줄로 알았던 백작이 돌아와서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가 후작부인에게 다짜고짜 자신과 결혼할 생각을 물었을 때, 후작부인은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며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들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Sie sah, über und über rot, ihre Mutter, und diese, mit Verlegenheit, den Sohn und den Vater an.” (MO110) 이와 같은 시선의 움직임은 가족질서 안에서 의사결정권의 서열을 보여준다. 이후 대화는 백

---

73) 이름이 직접 불리는 인물은 O...후작부인과 그녀의 아버지 둘뿐인데, 후작부인의 이름인 Julietta는 아홉 차례가 언급되고 아버지의 이름인 Lorenzo는 두 차례 언급된다. 이 밖의 경우에는 모두 후작부인, 사령관, 대령, 딸, 아버지로 지칭된다.

74) 전혜은: 섹스화된 몸, 79쪽 참조.

작과 사령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사령관은 딸을 대신해서 결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그는 딸이 남편인 O...후작이 죽었을 때 다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백작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후작부인이 그에게 느끼는 감사한 마음 die Dankbarkeit, die die Marquise für ihn empfände,”까지도 (MO111) 대신 전한다. 백작이 자리를 비운 이후 대화의 과정에서도 후작부인은 무척 소극적으로 가족들이 질문할 때에만 그녀의 생각을 수줍게 이야기할 뿐, 모든 의사결정은 아버지의 승인 아래 다른 가족들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후작부인의 재혼 문제를 두고 사령관과 백작이 협상하는 모습은 후작부인에 대한 소유권 다툼처럼 보인다. 첫 장면에서 전쟁이 일어난 쪽에서는 요새를 방어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후작부인을 놓고 두 남성 인물의 결투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는 사령관의 말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들이 후작부인과 백작의 결혼 가능성에 모두 동의하자, 사령관은 “나는 이 러시아인에게 벌써 두 번이나 항복해야만 하는군! [...] ich muß mich diesem Russen schon zum zweitenmal ergeben!” (MO118) 이라고 소리친다. 이때 딸을 흔쾌히 내어주지 않으려는 아버지와 달리 후작부인의 어머니는 그녀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바란다. 하지만 재혼을 주선하려는 어머니의 입장은 사실 딸을 자신의 소유로 두려는 아버지의 입장과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후작부인의 재혼 문제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후작부인이 아버지에게 속한 채 남아있을 것인지 혹은 새로운 남편에게 속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이들은 가부장적 질서 내부에서 후작부인의 위치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후작부인에 대한 소개 가운데 가족관계 안에서 그녀를 설명하는 것 외의 한 가지는 그녀가 훌륭한 평판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그녀가 미망인이라는 사실에 바로 덧붙여 언급되는데,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염두에 둘 때 이와 같은 언급은 귀부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덕목들 가운데 여성의 성적 정숙함을 연상시킨다. 후작부인에 대한 소개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대목은 여성

의 섹슈얼리티, 즉 몸에 대한 사회의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후작부인을 소개하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회의 관심이 재생산을 위한 제도로서 가족질서 안에 여성을 위치시킴으로써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이 가족질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그 임신이 다시 새로운 가족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 후작부인의 섹슈얼리티는 담론권력을 통해 억압되는 동시에 만들어진다. 즉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적 욕망이 조직되고 그 바깥에서는 억압되는 것이다. 후작부인은 “그녀의 남편인 O...후작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한 ihren Gemahl, den Marquis von O..., dem sie auf das innigste und zärtlichste zugetan war” 것으로 묘사된다. (MO104) 성적욕망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낭만적인 사랑과 결합되어 자녀의 출산이라는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후작부인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담론에 의해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억압되고, 그녀는 무성적인 존재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데 전념 mit Erziehung, und ihrer Eltern Pflege beschäftigt”할 (MO104) 뿐이다. 남편이 죽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 후작부인은 “아주 조용한 은둔생활 in der größten Eingezogenheit”을 (MO104) 했다고 묘사되는데, 이것 또한 후작부인의 섹슈얼리티의 억압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같은 단어는 이후에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수식이 덧붙여져 “영원한 수도원에서의 은둔생활 in ewig klösterlicher Eingezogenheit”이라고 (MO126) 표현된다. 그러니까 후작부인은 어떠한 성적인 접촉으로부터도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미망인이 따라야 하는 사회의 규범이기도 하다.

가부장적 가족담론은 이렇게 미망인인 후작부인의 임신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규범을 위반한다. 후작부인의 질서로부터의 이탈은 의도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위반에 대해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후작부인의 임신이 사실로 밝혀지

고 나서 후작부인은 어머니로부터 집을 떠나달라는 편지를 받는데, 이 편지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쓰인 것이다. 후작부인이 아버지의 방으로 찾아가서 울며불며 애원하자 아버지는 결국 권총을 쏘아 “폭군처럼 딸을 추방 tyrannischen Verstoßung der Tochter”한다. (MO130)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후작부인은 결혼 후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도시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안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하기로 결심한다. Sie beschloß, sich ganz in ihr Innerstes zurückzuziehen.” (MO126) 후작부인은 두 아이들과 뱃속의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하였고 “그녀는 수녀처럼 영원히 은둔하여 사는 운명에 익숙해졌다. als sie schon völlig mit dem Schicksal, in ewig klösterlicher Eingezogenheit zu leben, vertraut war.” (MO 126) 그리고 그녀는 문지기에게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후작부인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것이다.

후작부인의 임신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은 그녀를 추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후작부인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평화로운 은둔생활을 하고, 사회와 가족도 역시 사회적 담론에 포섭되지 못하는 후작부인의 몸을 격리시킴으로써 갈등을 봉합하고 기존의 질서를 되찾는다. 하지만 후작부인은 이내 이와 같은 단절이 사회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온전하게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다만 이 어린 생명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순수하게 임신했고, 이 생명의 근원은 더욱 신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성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이 아이에게 치욕스러운 낙인을 찍을 것이라는 생각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Nur der Gedanke war ihr unerträglich, daß dem jungen Wesen, das sie in der größten Unschuld und Reinheit empfangen hatte, und dessen Ursprung, eben weil er geheimnisvoller war, auch göttlicher zu sein schien, als der anderer Menschen, ein Schandfleck in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ankleben sollte. (MO 126-127)

비록 후작부인이 시골집으로 이사하고 외부인의 방문을 차단하여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했을지라도 그녀와 아이들은 여전히 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임신과 뱃속의 아이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글라스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의 질서는 더러운 것을 추방함으로써 세워진다. 하지만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구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sup>75)</sup> 다시 말해 후작부인과 그녀의 아이는 담론에 의해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후작부인과 아이들의 몸은 사회의 바깥으로 내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로부터 ‘부도덕한 여성’과 ‘사생아’라는 표식을 부여받은 채로 여전히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 사회는 그들을 추방함으로써 질서를 거스르는 개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질서에 순응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예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 사회는 이처럼 후작부인의 몸을 구분해 내고 그 몸을 부정함으로써 가족담론 내부에서 만들어진 임신한 몸이라는 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럽게 임신하게 된 후작부인의 몸은 사회의 의미망 안에서 기존의 위치를 박탈당한다. 후작부인은 앞서 살펴본 대로 가족관계 안에서 딸과 어머니라는 기존의 범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후작부인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됐다.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임신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기존의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후작부인은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한다. 가족관계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규정은 모두 얽혀있어서 남편 없이 홀로 아이의 양육에 전념하는 무성적 존재로서 어머니의 위치가 흔들리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딸로서의 자격도 박탈된다. 후작부인의 임신 자체가 수수께끼이고 그녀가 어떻게 해서 누구의 아이

---

75) 메리 더글라스(유제분 역):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 현대미학사 1997, 23쪽 참조.

를 가지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후작부인의 몸은 기존의 범주로 규정이 불가능해진다. 남편이 없는 미망인으로서 후작부인의 섹슈얼리티는 억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임신은 성적 정숙함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녀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혹은 강간을 당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후작부인은 피해자로서의 위치도 획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의미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후작부인의 몸은 버틀러적인 의미에서 비체화된다.<sup>76)</sup> 버틀러는 비체가 사회적 장에서 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며 그 때문에 인식조차 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일이 후작부인에게도 일어난다. 버틀러가 이야기한 ‘인식 불가능한 unintelligible’ 몸과 마찬가지로, 후작부인의 임신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어머니에 의해 후작부인의 ‘과악할 수 없는 unbegreiflich’ 몸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취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몸은 사회로부터 대접받을 만한 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후작부인의 어머니가 딸이 자신의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로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그녀의 몸은 전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후작부인의 임신한 몸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현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비천한 nichtswürdig” (MO124) 것으로 취급되던 그녀의 몸은 그녀가 부모님의 집으로 복귀한 뒤로는 “더 큰 사랑과 위엄으로 mit größerer Zärtlichkeit [...] und Würdigkeit” (MO136) 극진히 돌보아진다. 이는 버틀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몸의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담론과 권력의 규제를 통한 몸의 산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4.2. 해방적 움직임과 가족질서의 재편

O...후작부인의 임신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후작부인의 가족은 커다란 혼란을 맞는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가족질서의 균열로 이어진다. 이 과정

---

76) cf. Butler: Bodies that matter, p. 3.

의 중심에는 두 여성인물, 즉 후작부인과 그녀의 어머니인 대령부인의 각성과 변화가 있다. 사태가 변화하기 시작한 기점에는 후작부인을 쫓아내기 위해 아버지가 쏜 총탄이 있다. 딸의 임신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내를 시켜 후작부인에게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편지를 전달한다. 그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딸이 기어코 자신의 방을 찾아와 발밑에 엎드려 애원하자,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던 권총을 집어 발사한다. 이 순간 가족질서의 내부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정점에 달한다. 그는 독단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딸을 자신이 지배하는 가족질서로부터 추방한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규범을 어김으로써 가족질서를 어지럽힌 딸에게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이를 통해 실추된 자신의 권위를 다시금 확인한다. 하지만 이 순간 이후로 아버지의 권위는 서서히 무너지고 그의 권위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가족질서는 재편되기 시작한다.

후작부인은 아버지가 쏜 총소리를 듣고 방을 뛰쳐나간 뒤,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곧장 떠날 준비를 한다. 이때 후작부인의 오빠인 산림관이 나타나 아이들은 두고 떠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전한다. 이처럼 아버지의 금지와 명령은 다른 가족구성원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것 또한 가족질서 내부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확인하는 장치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아버지의 권위는 당사자에게 무언가를 금지하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후작부인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어긴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에게 “당신의 비인간적인 아버지에게 말하세요. 그가 와서 나를 쏘아 죽일 수는 있어도 내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Sag deinem unmenschlichen Vater, daß er kommen, und mich niederschießen, nicht aber mir meine Kinder entreißen könne!”라고 (MO125) 소리친다. 물론 그녀의 임신이 최초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과 달리, 여기서 후작부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녀가 이전에 가족질서 안에서 보이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이전에 가족들이 F...백작과의 재혼문제를 논의할 때, 후작부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가족들이 그녀에게 물어볼 때면 “수줍어하면서 schüchtern” (MO116) 겨우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후작부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당당한 태도로 맞서 “자신의 오빠에 대한 승리 einen Sieg [...] über ihren Bruder”를 (MO126) 거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승리한다.

후작부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는 그녀의 어머니인 대령부인에게서도 나타난다. 대령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쓴 충성을 듣고 기절한다. 그런데 기절에서 깨어난 이후 대령부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후작부인으로부터 아이들을 빼앗는 문제에 관해 대령부인은 남편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녀는 이전에 쓰러졌던 것 때문에 약하고 가엾은 목소리로 부탁할 sie bat mit einer, durch die gehabte Anwendung, schwachen und rührenden Stimme” (MO131) 따름이다. 이에 대해 “사령관은 언제나 명령하듯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Der Kommandant bat immer, auf eine Art, die einem Befehle gleich sah, zu schweigen” (MO131)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남편의 모습에 대해 대령부인은 불만을 품기 시작한다. 처음에 대령부인은 후작부인의 임신과 관련해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후작부인이 자신이 가진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을 때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이에 대한 답신이 실렸을 때 모두, 대령부인은 이를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사령관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겠다는 후작부인의 광고가 그녀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계획한 속임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를 껄뻐하게 여기면서 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대령부인에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두 번째 광고가 실린 이후 대령부인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스스로 후작부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낸다. 대령부인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사령관은 또다시 과격한 태도를 보이며 부인에게 딸과의 접촉을 금지시킨다. 남편의 완고함에 분노가 쌓여있던 대령부인은 결국 “그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한다. [...] beschloß ihren Plan jetzt,



gegen seinen Willen, auszuführen.” (MO133) 이렇게 해서 후작부인에 이어 대령부인까지 사령관의 금기를 깬다.

후작부인과 대령부인이라는 두 여성인물의 변화된 태도와 적극적인 행위가 맞물리면서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후작부인과 대령부인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게 된 데는 어떤 공통된 계기가 작용한다. 이것은 바로 ‘모성애 mütterliche Liebe’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작부인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금기를 깨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나오는 과정에서 후작부인은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된 후작부인은 운명이 자신을 빠트려 넣은 깊은 심연에서 혼자 힘으로 홀연히 솟아나왔다.

Durch diese schöne Anstrengung mit sich selbst bekannt gemacht, hob sie sich plötzlich, wie an ihrer eigenen Hand, aus der ganzen Tiefe, in welche das Schicksal sie herabgestürzt hatte, empor. (MO126)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한 후작부인이 자신의 실존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적 인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다.<sup>77)</sup>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자기발견이란 곧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77) 예컨대 권혁준의은 키르허 Kircher의 연구를 인용하며 “한편 후작부인은 가족의 영향력에 대해 공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거리를 갖게 되고 자신의 실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해방적인 의미에서 자기발견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다시 말해 가족에 의한 추방 조치가 후작부인에게서는 자기발견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통해 후작부인은 당대 시민사회의 인습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인다. 권혁준: 19세기 독일문학에서의 가족과 사회의 긴장관계, 10쪽.

후작부인이 발견하게 된 자기 자신이란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가부장의 권위에 맞서 싸운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다. 집에서 멀어지자 마음이 진정된 그녀는 아버지와의 전투로부터 얻어낸 “그녀의 사랑스러운 전리품 ihre liebe Beute”인 (MO126) 자신의 아이들에게 수차례 입을 맞춘다. 이후 후작부인은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자신의 아이들과 새로 태어날 뱃속의 아기를 위해 꾸려나간다. “그녀는 모든 열의를 다해 자신의 두 아이를 교육하는 데 몰두하고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세 번째 선물을 충만한 모성애로 돌보기로 결심했다. Sie beschloß [...] sich, mit ausschließendem Eifer, der Erziehung ihrer beiden Kinder zu widmen, und des Geschenks, das ihr Gott mit dem dritten gemacht hatte, mit voller mütterlichen Liebe zu pflegen.” (MO126) 모든 것을 단념하고 오로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은둔생활을 하던 후작부인은 불현듯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낼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이러한 계획도 자신의 아이를 사회적인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게 된 시점은 “어린 생명이 다시 뱃속에서 태동했을 때 da sich das junge Leben wieder in ihr regte”이다. (MO127) 즉 후작부인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체로서 거듭난다.

대령부인에게 일어난 변화 역시 후작부인과 동일한 계기에서 비롯된다. 후작부인의 아버지인 사령관은 딸을 쫓아낸 후 자신에게 “더 이상 딸은 없다고 [...] er hätte keine Tochter mehr”까지 (MO131)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어머니인 대령부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 대령부인은 후작부인의 광고에 대한 답변이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태 가운데 한 가지를 믿어야한다면, “그녀는 평소에 그토록 훌륭한 자신의 딸이 이러한 파렴치한 일을 했다고 믿기보다는 차라리 들어보지 못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믿겠다. [...] sie lieber an ein unerhörtes Spiel des Schicksals, als an diese Niederträchtigkeit ihrer sonst so vortrefflichen Tochter glauben wolle.”고 (MO132) 이야기한다. 이처럼 딸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었기에 대령부인은 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묘책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남편의 금

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 대령부인이 그토록 꺼리던 산파의 방문을 통해 후작부인의 임신이 사실로 드러나고 딸에 대한 대령부인의 실망과 분노가 정점에 달했던 순간에서조차, “대령부인은 그녀의 모성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없어서 Die Obristin, die ihr mütterliches Gefühl nicht überwältigen konnte,” (MO124) 산파를 도와 기절한 딸이 깨어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서술이 보여주듯이, 후작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령부인의 경우에도 모성애가 자신을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후작부인과 대령부인은 모성애 때문에 가부장의 권위에 대항한다. 후작부인의 임신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 이전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곧 가족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갑작스러운 임신과 추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부장의 권위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두 여성인물은 딸과 아내로서 가부장의 명령에 따르기 보다는 어머니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한다. 사실 ‘어머니 됨 mothering’이란 가부장적 담론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하나의 규범이고, 모성 담론은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의 효과적인 기제이다.<sup>78)</sup> 앞서 후작부인에 대한 소개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강요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여성의 역할을 양육에 한정지음으로써, 여성을 가정이라는 영역에 가두고 가부장적 담론을 지탱한다. 이때

---

78) 바덴테르에 따르면 모성이란 자연스러운 여성의 본능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근대에 이르러 발명된 역사의 산물이다.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는 아이를 돌보지 않는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학자들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온당치 않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후 어머니에게 자식들을 직접 돌볼 것을 권고하고 모유수유를 명령하는 출판물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여성에게 의무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동을 잠재적인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과 인구통계학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는 여성이 자애롭고 희생적인 어머니로 만들기 위한 매커니즘으로서 모성애의 위대함을 찬양했고, 18세기에 이르러 자연적 본능으로서 모성애라는 새로운 어머니상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성 신화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엘리자베스 바덴테르(심성은 역): 만들어진 모성. 동녘 2009, 147쪽 참조.

모성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됨으로써 하나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는 여성, 즉 모성이라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은 나쁜 어머니로 구분되어 비난받는다.<sup>79)</sup> 따라서 모성은 버틀러적인 의미에서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산출해내는 규범적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버틀러가 젠더는 내면적인 특질이 아니라 일련의 규범화된 행동양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담론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수행적’이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sup>80)</sup> 모성도 여성의 본능이 아니라 담론이 제시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어머니라는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부장적 담론 권력은 모성이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보이게 만듦으로써 권력의 작용을 은폐한다.

이처럼 모성애의 신화가 지배하는 가부장적 가족질서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혀 개인성을 상실한다. 하지만 후작부인과 대령부인은 딸과 아내로서 가부장과의 관계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나마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앞서 후작부인과 대령부인이 주체화된다고 말했을 때 이는 가부장적 담론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이름에 따라 규범을 내면화하며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의해 주체로서 만들어진다. 이들이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을 어머니로 이름 붙이는 가부장적 담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도 버틀러의 논의에 따라 해명될 수 있다. 버틀러에 따르면 주체는 권력과 담론의 그물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율성이나 순수한 행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sup>81)</sup> 선행연구들에서는 후작부인과 대령부인

---

79) 18세기에 바람직한 어머니상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의 구분이 생겨났고, 후자는 도덕적, 신학적으로 비난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과학적인 권위를 빌어 모성이라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는데, 예컨대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거부하면 본성이 육체에 별을 내린다는 식이었다. 바덴테르: 만들어진 모성, 197쪽 참조.

80) cf.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1999, p. xv.

이 이전의 규범에 순응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거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방의 한계라고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들이 담론권력이 강제하는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범의 내부에서 제한적인 의미의 주체화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두 여성인물의 역할 수행은 모성담론의 허구적인 성격을 폭로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다만 이들은 기존의 가족질서 내부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범인을 찾으려는 후작부인의 노력과 딸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대령부인의 노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들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되고 후작부인은 가족질서로 복귀한다. 그리고 후작부인이 돌아온 이후의 가족질서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가부장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후작부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 대령부인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둘은 눈물로 화해한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딸은 “승리의 환희에 찬 것과 같은 wie im Triumph” (MO136) 모습을 하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후작부인과 대령부인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령관의 권위에 맞서 투쟁했고 각자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것이 애초의 목적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들은 가부장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사령관이 자신의 딸과 아내에게 내렸던 금기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권총을 쏘아 딸을 추방했던 그의 폭압적인 행동이 정당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후작부인의 어머니인 대령부인이 이전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는다.

대령부인은 사령관이 그랬던 것처럼 독단적인 판단 아래 가족구성원들을 규율한다. 딸을 방으로 데려다놓은 뒤 대령부인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die sich von ihren Plänen nichts merken ließ” (MO136) 잠시 자리를 비운다. 그리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

81) 전해은: 섹스화된 몸, 287-289쪽 참조.

나타나 자신이 남편을 설득했고 그가 “마치 아이처럼 wie ein Kind” (MO136) 울고 있다고 말한다. 후작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자 대령부인은 사령관이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날 저녁까지 사령관이 오지 않으면 후작부인과 함께 집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대령부인은 고압적인 태도로 딸의 말을 가로막고 명령과 금지를 반복한다. 마침내 사령관이 격한 울음소리를 내며 후작부인을 찾아왔을 때, 그녀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하자 대령부인은 다시 후작부인에게 명령을 내린다.

움직이지 말거라. G...부인이 말했다. 너, 내말 듣고 있지! 사령관은 방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는 너에게 용서를 빌어야해. G...부인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왜 이렇게 과격한지! 또 왜 이렇게 완고한지! [...] 사령관은 몸을 굽혀 벽이 울릴 정도로 통곡했다. 아아! 후작부인은 소리치며 갑자기 어머니에게 굴복했고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G...부인은 말했다. 그는 말해서는 안 돼! 그리고선 살짝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후작부인은 일어나서 사령관을 끌어안으며 그에게 진정하라고 청했다.

Nicht von der Stelle, sagte Frau von G..., du hörst! Der Kommandant stand in der Stube und weinte. Er soll dir abbitten, fuhr Frau von G... fort. Warum ist er so heftig! Und warum ist er so hartnäckig! [...] Der Kommandant beugte sich ganz krumm, und heulte, daß die Wände erschallten. Aber mein Gott! rief die Marquise, gab der Mutter plötzlich nach, und nahm ihr Tuch, ihre eigenen Tränen fließen zu lassen. Frau von G... sagte: - er kann nur nicht sprechen! und wich ein wenig zur Seite aus. Hierauf erhob sich die Marquise, umarmte den Kommandanten, und bat ihn, sich zu beruhigen. (MO137)

딸과 아버지의 화해는 대령부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장

면에서 드러나듯이 아버지는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머니가 그것을 이양 받는다. 대령부인은 과거에 사령관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을 호령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녀의 권위를 중심으로 이전의 균열이 봉합되고 가족질서가 재편된다. 이후 가족 내부의 의사결정도 여성인물들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후작부인을 임신하게 만든 범인이 나타나기로 한 날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오빠의 역할이 부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딸에게 남자들은 물러나게 하자고 부탁했다. Die Mutter bemerkte die Unschicklichkeit der Rollen, die der Vater und der Bruder dabei zu spielen haben würden, bat die Tochter, die Entfernung der Männer zuzulassen” (MO139) 그리고 어머니는 F...백작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딸의 결혼 날짜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후작부인과 대령부인이라는 두 어머니의 각성과 변화는 가족질서의 내부에서 역학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놓는다.

### 4.3. 낯선 몸의 수용과 전복의 가능성

「O...후작부인」은 클라이스트의 다른 노벨레들과는 달리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끔찍한 죽음 없이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임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족들과 화해함으로써 가족질서로 되돌아간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바람대로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를 찾게 된다. 처음에 후작부인은 자신을 임신하게 만든 범인이 러시아 장교, 즉 F...백작이라는 사실을 안 후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극렬히 거부하지만, 두 번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 이로써 후작부인은 “백작부인 Gräfin” (MO142)이라는 이름을 얻고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찾아준다. 이렇게 그녀가 애초에 목적인 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후작부인과 백작의 사이에서는 “첫 번째 아이에 이어서 러시아 혈통의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났고 Eine ganze Reihe von jungen Russen folgte jetzt noch dem ersten” (MO143)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indem sie ihm um den Hals fiel” (MO143) 그와 대화를 나누는 더없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이 작품은 끝난다. 하지만 이전에 벌어진 모든 혼란을 한 번에 잠재우는 이러한 해피엔드는 어딘가 미심쩍다. 앞에서 “모든 것이 예전의 질서로 되돌아갔다. Alles kehrte nun in die alte Ordnung der Ding zurück.”는 (MO109) 문장이 오히려 사태의 급변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O...후작부인」의 갑작스러운 해피엔드는 불안의 씨앗을 숨기고 있다. 과연 후작부인과 백작이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을 꾸림으로써 기존의 사회질서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이 맞는 가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후작부인이 그녀가 바라던 대로 가족과 사회의 질서 안으로 되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에서 해명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독자로서 하여금 이들의 행복에 안도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바로 백작이 부인을 ‘강간 Vergewaltigung’했다는 사실이다. 클라이스트의 작품 비평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가 ‘폭력 Gewalt’인데, 「O...후작부인」에서는 작품 초반의 짧은 전쟁 장면을 제외하고는 폭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작품의 핵심적인 사건인 성폭력이 은폐되어 있다. 후작부인이 자신도 모른 채 임신해서 담론질서의 바깥으로 쫓겨나고 다시 기존의 질서로 복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폭력 사건을 잊게 된다. 후작부인의 성적인 스캔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혹독했던 사회가 백작의 강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범인을 기다리고 있던 후작부인의 가족 앞에 백작이 나타났을 때 오직 후작부인만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분노할 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백작을 곧바로 용서한다.

어머니는 백작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묻지 마세요. 이 젊은이는 지나간 모든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이 축복해 주세요. 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날 거예요. 백작은 마치 죽은



것처럼 서있었다. 사령관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꺼풀이 경련했고 그의 입술은 백목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하늘의 저주가 이 머리에서 물러나게 해주소서! 그가 외쳤다. 당신은 언제 결혼할 생각입니까? 내일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를 대신해 대답했다. 내일 아니면 오늘 중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백작은 자신의 범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

Die Mutter nahm den Grafen bei der Hand und sagte: frage nicht; dieser junge Mann bereut von Herzen alles, was geschehen ist; gib deinen Segen, gib, gib: so wird sich alles noch glücklich endigen. Der Graf stand wie vernichtet. Der Kommandant legte seine Hand auf ihn; seine Augenwimpern zuckten, seine Lippen waren weiß, wie Kreide. Möge der Fluch des Himmels von diesen Scheiteln weichen! rief er: wann gedenken Sie zu heiraten? - Morgen, antwortete die Mutter für ihn, denn er konnte kein Wort hervorbringen, morgen oder heute, wie du willst; dem Herrn Grafen, der so viel schöne Beeiferung gezeigt hat, sein Vergehen wieder gut zu machen, wird immer die nächste Stunde die liebste sein. (MO141)

어머니의 권위에 의해 백작은 후작부인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으며 이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후작부인과의 결혼도 성사된다. 그런데 과연 대령부인의 말처럼 백작이 이와 같은 용서와 관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백작은 이 자리에서 단지 대령부인의 옷깃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존경하는 부인! Liebe! Gnädige! Verehrungswürdigste!”이라는 (MO141) 아무 의미 없는 말만 속삭일 뿐, 자신의 죄를 털어놓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단 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백작의 범행에 관한 사실은 작품 어느 곳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후작부인이 강간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긴 줄표는 영영 채워지지 않는 공백으로 남는 것이다. 따라서 백작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는커녕 아름답고 행복

한 가족의 모습으로 끝맺음으로써, 이 작품의 결말은 해소되지 않는 불편함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강간으로 인해 후작부인 본인이 입은 피해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후작부인에 관한 소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회의 관심은 여성을 가족질서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데 있다. 여성의 임신은 언제나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며, 미망인인 후작부인은 아버지의 슬하에 무성적인 존재처럼 지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후작부인의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해 관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작부인의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촉발되어 결혼으로 마무리되는 일련의 사건은 후작부인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아버지와 백작의 소유권 분쟁으로 볼 수 있다.<sup>82)</sup> 평범한 결혼 과정에서라면 임신 이전에 구혼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고,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이후 임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백작은 강간을 통해 사령관으로부터 후작부인의 섹슈얼리티를 갈취한다. 강간이 피해여성 당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남성들 간의 분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작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령관은 격분한다. 어머니에게는 무엇보다도 신뢰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과 달리,<sup>83)</sup> 아버지는 후작부인이 성적 정숙함을 잃어버린 사실 자체,

---

82) 남성권력이 공고화된 형태인 가부장제가 발전한 이후 여성은 남성의 최초의 영구적 취득물이었다. 이러한 초기의 여성 종속으로부터 소유권 개념이 발달했다. 이처럼 여성은 남성 소유의 부속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간은 여성의 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남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수전 브라운밀러(박소영 역):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 봄 2018, 28-32쪽 참조.

83) “실수라면 그것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겠지만, 결국 나는 그 실수를 용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어머니인 나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놓는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불경스러운 맹세를 더하여 너를 깊이 믿고 있는 나의 마음에 더 큰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파렴치한 일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Ein Fehltritt, so unsäglich er mich schmerzen würde, er ließe sich, und ich müßte ihn zuletzt

즉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는 데 분노한다. 하지만 섹슈얼리티의 소유권에 대한 평범한 이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커다란 스캔들을 일으켰던 후작부인의 임신도 추후에 백작과의 결혼으로 정상화된다. 사령관은 “결혼계약 Heiratskontrakt”을 (MO142) 통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상으로도 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sup>84)</sup>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 담론의 규정에서 이탈했던 후작부인의 몸은 백작과의 결혼을 통해 가족질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는 곧 후작부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사령관과 백작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후작부인에 의해 발생한 예기치 않은 소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백작은 자신의 범행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는 후작부인의 가족 앞에 돌연히 나타나 구혼하고 후작부인이 게재한 신문 광고를 본 이후에도 그녀를 찾아가 다시 한 번 청혼한다. 백작이 바라는 바는 자신과 후작부인이 “모든 치욕과 모든 불행 alle Schmach und jedes Unglück”을 (MO128) 겪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의 강간 사실을 숨기고 후작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그의 첫 번째 구혼은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골에 은거하고 있던 후작부인을 찾아갔을 때도 그녀는 백작을 밀쳐낸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백작은 “왜 이토록 나의 길을 방해하는가! Warum legte man mir so viele Hindernisse in den Weg!”라고 (MO127-128) 외치는데, 그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후작부인이다. 이전에 백작이 후작부인의 가족들에게 들려준 백조 일화는 백작과 후작부인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백작은 어릴 적 숙부의 저

---

verzeihn; doch wenn du, um einem mütterlichen Verweis auszuweichen, ein Märchen von der Umwälzung der Weltordnung ersinnen, und gotteslästerliche Schwüre häufen könntest, um es meinem, dir nur allzugerngläubigen, Herzen aufzubürden: so wäre das schändlich; ich würde dir niemals wieder gut werden.” (MO122)

84) 권혁준: 19세기 독일문학에서의 가족과 사회의 긴장관계, 8쪽 참조.

택에서 보았던 백조의 모습과 후작부인의 모습을 혼동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순결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백조에게 오물을 던진 적이 있는데, 백조는 물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었고, 자신이 부르는데도 오지 않고 홀로 헤엄치는 것을 즐겼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임신으로 초래된 혼란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이 과정에서 백작의 범행이 드러나고 후작부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던 백작의 바람과 달리, 후작부인은 신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을 공적인 차원으로 끌어내 커다란 스캔들을 일으킨다.

후작부인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남성인물들 간의 소유권 다툼에서 단순히 피해자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가부장적 권위를 훼손하고 가족질서가 부분적으로 재편되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후작부인의 신문광고 게재 행위는 보다 근원적인 층위에서 가부장적 담론질서에 균열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행위가 기존의 규범에 대한 순응과 위반이 뒤섞여있는 모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후작부인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본래 목적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서 그녀와 아이가 다시 사회의 질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가족제도를 따르려던 후작부인의 노력은 오히려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커다란 스캔들을 일으킨다. 후작부인의 신문광고 게재는 기존의 규범을 존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다른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작부인이 마땅히 감추어야 할 자신의 몸을 가장 공적인 장에 내보인다는 사실이다. 후작부인은 미망인의 몸으로 임신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어기게 되고, 그녀의 몸은 버틀러적인 의미에서 ‘비체’가 된다. 후작부인은 담론질서의 주변부로 밀려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도 한다. 그녀가 아무리 무고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미망인으로서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는 그녀에게 수치심을 갖고 사회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몸을 숨길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후작부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의 혼외임신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간 피해사실에 대

해 공개적으로 말한다.

이처럼 규범에 순응하기 위한 후작부인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규범을 위태롭게 만든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규범에 복종하는 동시에 불복종한다. 이러한 모순은 수행성에 관한 버틀러의 논의를 빌려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틀러는 담론의 외부에 존재하는 완전히 자율적인 주체라는 관념을 폐기한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가족담론에 대항할 때에도 후작부인은 이러한 담론이 자신에게 부과한 어머니로서의 신분에 의거해 싸웠듯이, 행위는 언제나 담론에 의존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버틀러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주체는 규범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규범을 전복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담론권력에의 완전한 종속도 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도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저항과 전복을 추동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구조가 반복에 의해 존속되는 동시에 그것의 안정성을 교란당한다고 설명한 데리다의 논의를 빌려, 규제적인 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인용되는 가운데 처음의 의도와 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불안정성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전복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후작부인은 바로 이렇게 가부장적 담론이 그녀에게 부과하는 규범을 ‘다르게 반복’함으로써 기존의 담론질서에 불안정성을 야기한다.<sup>85)</sup> 그녀는 임신과 결혼, 가족의 구성이라는 가부장적 담론의 요구에 따르고자 하지만, 이는 구조를 존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의례적인 반복과 다르다.

후작부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후작부인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줄 수 없다면, 이들은 사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후작부인의 가족들은 만약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대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방안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차선책에 불과할 뿐 온전한 가족을 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작부인은 그와는 반대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자 했다. Die Marquise hingegen schien willens, [...] dem Kinde, es koste was es wolle, einen

---

85) 전해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167-169쪽 참조.

Vater zu verschaffen.” (MO139) 강간의 피해자로서 후작부인이 사회질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홀로 임신한 미망인과 사생아라는 존재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 결혼으로 맺어져 가족을 이룬 강간의 피해자로서 여성과 가해자로서 남성, 그리고 이들의 자녀는 적법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다. 여기에서 보듯이 강간이라는 범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을 정당화하는 제도로서 결혼과 가족이다. 따라서 후작부인은 신문 광고의 게재라는 선택이 “세간의 비웃음을 불러일으킬 조치 den Spott der Welt reizenden Schritt” (MO104)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수모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 대체 정상적인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후작부인은 결국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낸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자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고, 자신을 임신하게 만든 범인인 백작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질서로 복귀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여성 인물의 자기 발견에 따른 행동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질서의 변동은 동시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빈번히 지적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작부인과 그녀의 어머니가 일정 정도의 가족 질서의 재편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가부장적 소가족 제도 내부에서 역할을 교체한 것뿐이고, 후작부인과 러시아 장교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시되거나 붕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언급된다.<sup>86)</sup>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해석과는 달리 후작부인의 행위, 특히 신문 광고의 게재라는 행위는 표면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변화 외에 가족 제도와 사회 질서 자체에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론 후작부인의 행위만으로 가부장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회는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가족을 자신의 질서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불안정성을 내포하게 된다. 모든 소란 끝에 새로이 구성된 이 가족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혈연공동체이다.

---

86) Breuer(Hrsg.): Kleist Handbuch, S. 111.

하지만 독자는 후작부인이 마침내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결혼해 줄줄이 아이를 낳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데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담론권력에 의한 규율과 그 부조리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상한 해피엔드로부터 긴장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가족제도와 결혼제도 그리고 이것을 강제하는 가부장적 담론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가 마련된다.

## IV. 결론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몸의 존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눈길을 끈다. 예컨대 몸이 처참히 찢기고 짓이겨지는 장면으로 작품이 끝맺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인종들의 몸을 중심으로 갈등의 양상이 펼쳐지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몸으로 표현되는 제스처, 얼굴의 홍조나 창백함, 기절과 같은 모티브들이 반복된다. 그의 노벨레인 「O...후작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몸의 존재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클라이스트는 이 작품에서 강간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의 몸이라는 불편한 이미지를 우리 눈앞에 제시한다. 이 작품이 여느 클라이스트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발표 당시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납득할만하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소재는 당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몸이라는 소재의 선택 자체에 이미 시대와 끊임없이 불화했던 클라이스트의 반시대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클라이스트의 비판적인 몸 담론은 동시대의 정신사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에서 나아가, 몸에 관한 현대적인 이론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몸’은 시대와 불화하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선취하고 있는 클라이스트 작품의 독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클라이스트의 작품을 통해 재현되는 몸은 한 편으로는 18-19세기의 몸 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특히 몸을 폄하하는 당대의 계몽주의 철학과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몸은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신과 이성의 통제와 규율로부터 벗어나 이분법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놓기도 한다. 정신, 영혼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몸의 존재는 당대 사상사적 흐름에 대립하는 작가의 입장을 보여준다. 클라이스트 전기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칸트위기’는 클라이스트가 당대의 로고스중심주의적인 사유의 흐름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과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거두게 되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때 정신과 영혼, 이성을 압도하는 몸은 칸트위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클라이스트는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 속



에서 후자를 긍정함으로써 당대 사상사적 흐름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클라이스트의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는 몸으로부터 20세기 이후 활발히 논의되어온 몸에 관한 현대적인 담론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점차 증가하여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몸 자체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몸의 실체는 점차 의문시되고 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몸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실체가 아닌 담론에 의한 구성물임이 밝혀진다. 즉 몸은 순수한 자연물로서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과 그것을 생산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몸의 구성적인 성격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푸코와 버틀러를 비롯한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언제나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해내는 권력에 비판을 가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클라이스트 작품에서 재현되는 몸으로부터 특정한 형태의 몸을 강제하는 동시대의 담론에 대한 비판을 읽어낼 수 있다.

클라이스트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몸은 과연 무엇인가? 이는 몸에 관한 하나의 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비호를 받는 인간 정신의 대척점에 위치한 순수한 물질 또는 생물학적 실체로서 몸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 담론에 의해 각인되고 생산되는 구성적인 몸이기도 하다. 즉 클라이스트의 작품을 통해 재현되는 몸은 18세기적 몸 담론과 현대적 몸 담론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어느 경우에서건 클라이스트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몸은 전복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 고 문 헌

### 1. 일차 문헌

- Kleist, Heinrich von: Die Marquise von O.... In: Helmut Sembdner(Hrsg.): Heinrich von Kleist. Sämtliche Werke und Briefe. München 2001. (=MO)
- \_\_\_\_\_ :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In: Helmut Sembdner(Hrsg.): Sämtliche Werke und Briefe. Zweiter Band. München 2013. (=ÜM)
- \_\_\_\_\_ : Gedichte und Fabeln. In: Ilse-Marie Barth u.a.(Hrsg.): Sämtliche Werke und Briefe in vier Bänden. Bd. 3. Frankfurt a.M. 1991.

### 2. 이차 문헌

- Barck, Karlheinz u.a.(Hrsg.): Ästhetische Grundbegriffe Band 1. Stuttgart/Weimar 2000.
- Breuer, Ingo(Hrsg.): Kleist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09.
- Butler, Judith: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Routledge 1993.
- \_\_\_\_\_ :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1999.
- Choluj, Bozena: Auf den Körper schauen und hören: Zur Körperproblematik in Heinrich von Kleists Penthesilea und Die Marquise von O. In: Beiträge zur Kleist-Forschung. 2002, S. 103-116.

- Cohn, Dorrit: Kleist's "Marquise von O...": The Problem of Knowledge. In: Monatshefte 67(1975), pp. 129–144.
- Curtis, Bentzel: Knowledge in Narrative: The Significance of the Swan in Kleist's "Die Marquise von O...". In: The German Quarterly Vol. 64(1991), pp. 296–303.
- Debriacher, Gudrun: "Der Rede der Seele über den Körper". Das "commercium corporis et animae" bei Heinrich von Kleist. Wien 2007.
- Eckermann, Johann Peter: Gespräch mit Goethe in den letzten Jahren seines Lebens. München 1988.
- Gnam, Andrea: Die Rede über den Körper. Zum Körperdiskurs in Kleists Texten Die Marquise von O. und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In: Heinz Ludwig Arnold (Hrsg.): Text und Kritik. Sonderheft Heinrich von Kleist. München 1993, S. 170–176.
- Herwig, Henriette: Unwillkürlicher Körperausdruck und rhetorische Beredsamkeit des Leibes in Kleists Novelle Die Marquise von O.... In: Dies. (Hrsg.): Zeichenkörper und Körperzeichen im Wandel von Literatur– und Sprachgeschichte. Freiburg 2005, S. 63–79.
- Kommerell, Max: Die Sprache und das Unaussprechliche. Eine Betrachtung über Heinrich von Kleist. In: Ders.: Geist und Buchstabe der Dichtung: Goethe, Schiller, Kleist, Hölderlin, Frankfurt a.M. 1991.
- Künzel, Christine: Vergewaltigungslektüren: Zur Codierung sexueller Gewalt in Literatur und Recht. Frankfurt a.M./New York 2003.
- Menke, Bettine: Körper–Bild und–Zerfällung, Staub. Über Heinrich von Kleists Penthesilea. In: Claudia Öhlschläger u. Brigit Wiens (Hrsg.): Körper Gedächtnis Schrift. Der Körper als Medium

- kultureller Erinnerung. Berlin 1997, S. 122–156.
- Neumann, Gerhard: Das Stocken der Sprache und das Straucheln des Körpers. Umriss von Kleists kultureller Anthropologie. In: ders. (Hrsg.): Heinrich von Kleist. Kriegsfall-Rechtsfall-Sündenfall. Freiburg i. Br. 1994, S. 13–29.
- Oschmann, Dirk: How to do words with things. Heinrich von Kleists Sprachkonzept. In: Colloquia Germanica. Vol. 36. No. 1. (2003), S. 3–26.
- Stockinger, Ludwig: „Es ist der Geist, der sich den Körper baut“. Schillers philosophische und medizinische Anfänge im anthropologiegeschichtlichen Kontext. In: Georg Braungart u. Bernhard Greiner(Hrsg.): Schillers Natur: Leben, Denken und literarisches Schaffen. Hamburg 2005.
- Thurner, Christina: Körper-Beherrschung und Kontrolle-Verlust in Kleists Dramen. In: Kleist Jahrbuch. 2007, S. 195–203.
- Vogel, Anke: Unordentliche Familien. Über einige Dramen Kleists. Heilbronn 1996.
- Weigel, Sigrid: Der Körper am Kreuzpunkt von Liebesgeschichte und Rassendiskurs in Heinrich von Kleists Erzählung Die Verlobung in St. Domingo. In: Kleist-Jahrbuch. 1991, S. 202–217.
- Weiss, Hermann F.: Precarious Idyll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Daughter in Heinrich von Kleist's Die Marquise von O.... In: Modern Language Notes 91(1976), pp. 538–542.
- 권혁준: 19세기 독일문학에서의 가족과 사회의 긴장관계 - 클라이스트의 『O 후작부인』 과 폰타네의 『에피 브리스트』 를 중심으로.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 76집(2017), 1–28쪽.
- 김주희: 실러에게서 전인적 인간에 대한 요청의 이해. 실린 곳: 대한철학회 제 140집(2016), 243–270쪽.
- \_\_\_\_\_: 실러의 『칼리아스편지』 와 『우미와 존엄』 에서 미의 이해와 미의

- 실현에 대한 요구. 실린 곳: 대한철학회 제 136집(2015), 139-169쪽.
- 김현정: Heinrich von Kleist의 「Die Marquise von O...」에 대하여. 실린 곳: Echo No.6(1993), 23-29쪽.
- 노태한: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O 후작부인 Die Marquise von O...』. 계몽주의적 사회비판과 종교비판. 실린 곳: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제 49권(2010), 223-253쪽.
- 더글라스, 메리(유제분 역):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 현대미학사 1997.
- 데카르트, 르네(최명관 역): 방법서설•성찰. 창 2010.
- 바댕테르, 엘리자베스(심성은 역): 만들어진 모성. 동녘 2009.
- 박삼열: 데카르트 실체 개념의 문제점과 후대 합리론자들의 해결방안. 실린 곳: 철학논집 제20집(2010), 133-163쪽.
- 브라운밀러, 수전(박소영 역):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 여성 그리고 공간의 역사. 오월의 봄 2018.
- 서순석: 클라이스트의 단편소설 『오 후작부인』에 나타난 주요인물의 양면성 연구. 실린 곳: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제 21권(2001), 389-420쪽.
- 셸러, 프리드리히(장상용 역): 셸러의 미학·예술론-칼리아스 편지, 우미와 존엄 외.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 안용규: 플라톤의 신체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실린 곳: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제 19권2호(2011), 153-191쪽.
- \_\_\_\_\_ : 섹스화된 몸. 엘리자베스 그로츠와 주디스 버틀러의 육체적 페미니즘. 새물결 2010.

## Zusammenfassung

# Der Körper als Symptom des Umsturzes

–Eine Studie zu Kleists *Die Marquise von O...*–

Yoo, Haeun

Fakultät für Germanistik

Seoul National Universitä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Kleists Novelle *Die Marquise von O...* anhand des Körpers der Hauptfigur analysiert. In der unerhörten Begebenheit, die sich in dieser Novelle ereignet, geht es um den Körper einer schwangeren Frau, Marquise von O... Kleists andere Novellen beginnen oft mit einem wirren Durcheinander. Im Vergleich zu den großen Ereignissen wie Naturkatastrophen, Epidemien oder politischen Krawallen kann die Schwangerschaft einer Frau zwar als unbedeutend erscheinen, bleibt aber nicht allein ihre persönliche Angelegenheit. Sie erschüttert die Familienordnung in seinen Grundfesten und weit darüber hinaus auch die gesellschaftliche Diskursordnung.

Im Zeitraum vom späten 18. Jahrhundert bis zum Beginn des 19. Jahrhunderts, in dem Kleist seine Werke verfasste, hatte die aufklärerische Vernunft geistesgeschichtlich die Oberhand, und in der Sphäre der bürgerlichen Familie das Patriarchat. In diesem Zusammenhang stellt diese Arbeit in Bezug auf den in der Novelle gestalteten Körper die folgenden zwei Fragen: Erstens stellt sich die

Frage, warum Kleist in seinem Werk den Körper thematisiert hat, der zu seiner Zeit wegen der logozentrischen Herrschaft gering geschätzt wurde. Zweitens stellt sich die Frage, inwieweit sich diese Novelle unter Gender-Aspekten interpretieren lässt, wenn man die Tatsache berücksichtigt, dass der Körper, der im Mittelpunkt des Skandals steht, kein anderer ist, als der schwangere, weibliche Körper.

Kleists essayistischen Erzählung,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enthält Ansätze zu seinem kritischen Denken über den zeitgenössischen Körperdiskurs. In dieser Erzählung parodiert Kleist Schillers Begriff der Anmut und stürzt damit sowohl den Leib-Seele-Dualismus als auch die Werthaltungen des Logozentrismus, die dieser Dualismus repräsentiert.

Auf diese Weise kritisiert der kleistische Körperdiskurs die aufklärerische Sichtweise auf das Verhältnis von Körper und Geist und hat darüber hinaus einen Berührungspunkt mit der modernen Theorie von Judith Butler. Kleist kehrt die hierarchische Struktur in der Realität um, indem er dem Behinderten, der Marionette und dem Tier die Anmut zuteilwerden lässt und damit den Streit mit der bestehenden symbolischen Ordnung, die das Subjekt und das ‚object‘ herstellt, beginnt. Zudem führt die Anekdote von dem Jungen und dem Dornauszieher zur Kritik des zeitgenössischen Diskurses, der die bestimmte Form des Körpers erzwingt.

Im Zusammenhang mit der bisherigen Argumentation wird *Die Marquise von O...* neu interpretiert. Der Körper der Marquise wird einerseits als Gegenstück zum Geist, andererseits als das durch den Diskurs Disziplinierte diskutiert. In jedem Fall birgt der Körper die Möglichkeit des Umsturzes, die der bestehenden Ordnung droht. Der Skandal, der sich in dieser Novelle ereignet, besteht darin, dass der Körper der Marquise buchstäblich ‚in andre Umstände gekommen sei‘. Dies bedeutet, dass ihr Körper von der bestehenden Ordnung abweicht.

In erster Linie weicht der Körper der Marquise durch ihre Schwangerschaft von der dualistischen Ordnung zwischen Leib und Seele ab. Sie erfasst diese Situation selbst gar nicht, weil sie sich in zwei Teile, nämlich Körper und Geist, aufspaltet. Während ihr Geist die Schwangerschaft nicht begreift, empfindet ihr Körper ständig die Signale der Empfängnis. Wenn in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die Anmut der Marionette als bloßer Materialität zugeteilt wird, dann wird in dieser Novelle nicht der Geist, sondern der Körper das Subjekt der Erkenntnis und kehrt sich somit die Herrschaft des Geistes über den Körper um.

In zweiter Linie bricht der Körper der Marquise aus der diskursiven Ordnung, die den Körper zu disziplinieren versucht, aus. Der Körper der Marquise, die ohne ihr Wissen schwanger wird, kann nicht mehr dem normativen Diskurs, den die patriarchalische Gesellschaft Frauen aufzwingt, folgen. Die Marquise wird als Strafe aus ihrer Familie und der Gesellschaft ausgeschlossen. Paradoxerweise wendet sie sich erst aus diesem Anlass aktiv gegen die patriarchalische Ordnung. Diese Handlung greift auch auf ihre Mutter, die Obristin, über. Auf diese Weise gelingt es der Marquise, zur diskursiven Ordnung der Gesellschaft zurückzukehren. Dabei wird die patriarchalische Familienordnung durch die Befreiungsbewegung der zwei Mütter aufgelöst. In der bisherigen Forschung hält man die Rückkehr der Marquise zur Familienordnung für die Grenze der Emanzipation. Eine solche Interpretation kann aber bestritten werden, weil sie nur auf die Subjektivität aufmerksam wird, um die Emanzipationsbewegung der Frauenfiguren zu erklären. Anhand des Begriffs der Performativität lege ich in meiner Arbeit die Annonce der Marquise als subversiven Akt aus, der an den Grundfesten der diskursiven Ordnung der Gesellschaft rüttelt.



Schlüsslewörter : Heinrich von Kleist, Die Marquise von O..., Über das  
Marionettentheater, Körper, Logozentrismus, abject, Performativität,  
Friedrich von Schiller, Judith Butler  
*Student Nummer* : 2014–22243